JUL 29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86 1982년 7월 28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July 2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국계미녀(미스 괌) 2위
최고 미녀에 미스 캐나다

미스·캐나다 캐렌·볼드윈(18)양이 캐나다대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스·유니버스로 뽑혔다.

26일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미의 제전에서 2등을 차지한 미스·괌도는 한국교포로 한국여성의 미를 세계적으로 드높였다.

82년도 미스유니버스가 된 캐나다의 캐렌·볼드윈양은 "이것이 꿈이라고 말해줘요. 정말 믿을수 없어요."라고 흥분과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81년도 미스유니버스인 베네주엘라의 이레네·사에즈양으로 부터 왕관을 물려받은 볼드윈양은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세계 최고의 미녀로서의 첫 발을 내딛였다.

녹색눈과 고동색머리카락을 가진 18세의 볼드윈양은 키 5피트10인치, 몸무게 119파운드로 온타리오 런던 출신. 가족으로는 부동산회사 사장인 아버지와, 부동산회사 브로커인 어머니와 21살난 오빠가 있다.

케렌양은 최종목표가 디자인비지네스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1년동안의 미의 사절을 끝낸후 런던의 웨스턴대학에서 비지네스를 전공한후, 뉴욕의 패션학교에서 공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현세에서 제일위대한 사람으로 테레사수녀를 꼽았고, 또 각종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번 리마대회에는 한국의 박선희양을 비롯 77명의 세계 미녀들이 참가했다.

예비수영복심사를 거쳐 12명의 미녀가 선발되고, 인터뷰, 수영복, 이브닝드레스 심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5명의 미녀가 추려졌다. 5명의 미녀는 나라별로 캐나다, 미국, 그리스, 이태리, 괌도였다.

인터뷰에서 "Price is Right" 사회자로 유명한 미스유니버스 단골 사회자인 밥·바커는 미스·괌도에게 괌도에서 출생한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왔냐고 묻자, 미스괌은 "코리아"라고 말하며, 아버지는 정부관리로 일한다고 덧붙였다.

미스·괌은 인터뷰, 수영복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이브닝드레스 심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미스·유니버스가 되지 않나 추측했지만, 영광은 미스·캐나다에게 돌아갔다.

이날 미스·유니버스대회는 위성중계로 세계 6억 인구가 관람했다. 12명의 심사위원중에는 여배우 시실리·타이슨, 브로드웨이 연출가 데이빗·메릭과 이태리배우 프랑크·네로가 포함됐다.

◆82년도 「미스 유니버스」의 영예를 차지한 미스 캐나다 볼드윈양이 잠시전까지도 경쟁자였던 동료미녀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과 흥분으로 넘쳐있다. 오른쪽의 볼드윈양의 뺨을 어루만지는 미녀가 한국계인 미스·괌도.

"10년전 토론토 인구는 3천명"
이민사자료 속속 도착

10년전인 72년 토론토한인사회는 인구 3천명, 단체로는 교회 4개, 카톨릭봉사회, 클럽·코리아나(토론토대학교 한인대학생 단체)가 있었고, 신문으로는 한가주보(후에 폐간)와 한국일보(시카고 판)가 있었다. "스쿨"(학교)이라고 이름붙은 기관은 한인회 한글학교와 운전학교인 캐나다 드라이빙·스쿨(정태훈씨 경영)뿐이었다.

10년후인 82년 현재 토론토 인구는 만 4만명, 교회는 30여개, 신문은 일간지1개, 주간지3개, 학교는 한글학교나 태권도학교, 운전학교를 포함, 약40개나 되어 한인사회의 과거 10년간의 양적 팽창을 말해준다.

현재를 10년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72년 메트로·토론토 국제회관(International Institute of Metro Toronto)이 발행한 아시아 이민사회록(Asian Community Directory of Metro Toronto)덕분이다.

당시 소셜·워커(사회사업가) 캐더린·리가 근무하던 국제회관은 교포등 새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취업을 돕던 기관으로서 박형배씨가 이민사회록 발간에 참여, 한인관계를 책임 맡았다.

박씨는 최근 당시의 한인사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하는 이민사회록을 본사 병설 한인 이민사자료실(실장 이석현)에 기증, 앞으로 한인이민사 정립에 참고가 되기를 바랐다.

박씨외에도 귀중한 문헌, 도서등을 보내주는 인사가 늘어 이민사자료실은 비이민관계 도서및 문헌도 보관하는 다목적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국서도 구하기 힘든 저항시인 〈양성우 시집〉이 있는가 하면, 여권운동의 바이블(성경)인 케이트·밀렛의 〈성의 정치학(Sexual Politics)〉 번역본도 있고, 트루도수상의 별거중인 부인 마가렛·트루도의 자서전 제1권 〈이성을 넘어서(Beyond Reason)〉도 있다.

특히 본사 논설위원 김정근씨는 5차에 걸쳐 1백여점에 달하는 자료를 희사했다.

지난 5월14일자 본보 발표분 이후의 기증자와 자료는 다음과 같다.

◎2차 자료분

◉박형배씨
1)Asian Community Directory of Metropolitan Toronto,

◉전태균씨
1)한가주보(토론토 한인사회 최초의 신문: Korean Canada Times) 71,12,20/72,2,28
2)제4회 캐나다미스코리아선발대회 프로그램(76,5,2)·미인대회 화보,
3)지방소식(한국일보 시카고지사) 토론토 뉴스 71,11,25/72,2,3
4)토론토지구교민회 70년도 결산보고,
5)토론토한인회 회칙개정안(71,12,16)
6)토론토한인회 임원회의록(71,2,5/2,16/3,13/4,24/11,27)
7)뉴욕한인회 회칙(71년도)
8)남가주한국거류민회 회칙(71년)
9)토론토한인회 72년도 정기총회 공고문

◉김정근씨
1)월간 「한국인」(한국일보뉴욕지사 발행) 창간호(79,10), 11월호, 12월호
80년 1, 3, 5, 8, 9, 11월호
81년 5월호
2)잡지 「현존」 77년6~12월호(서울)
3)「씨알의 소리」(서울)
78년 9~12월호
79년 1~12월호
80년 1~7월호
4)「동서문화」(서울)
71년 9, 12월호
5)「강원교육」(춘천) 75년 5월호
6)「교육경남」(부산) 75년 3월호
7)「제3일」 속간 1호(74년 10월)~53호(80년 10월) 55(80,12)~60호(81,6)
8)「수필문학」(서울) 76년 5월호
9)「월간대화」(서울) 77년 8, 9월호
10)「이것이 한국이다」(도리하·작, 추성철 역(서울))
11)「한국하술 연구」(서울)
77년 겨울호, 78년 여름호, 79년 봄호
12)「국제관계 연구」(서울) 79년 봄호
13)「성의 정치학」(상·하) 키이트·밀레트
14)Sexual Politics(키이트·밀레트)
15)양성우시집 「노예수첩」
16)주태전파(여성동아 76,10 부록)
17)「무기여 잘있거라」(헤밍웨이, 정병조역)
18)「유끼구니」·「지바즈루」(가와바다 야스나리·김진울 역)
19)「데미안」(헤르만·헤세, 지명렬 역)

(계속)

한영수의원, 2년구형 의원직 사임 비쳐

(서울27일=연합)한국의 제일야당인 민한당의 한영수의원은 간통죄로 2년징역 구형을 받고 27일 의원직 사임의 뜻을 비쳤다.

한의원과 그의 정부 박인숙은 지난6월29일 간통혐의로 기소됐었다. 한국에서는 간통은 형사법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지방형사법원 제2차 공판에서 구형을 받은후, 한의원은 더이상 동료의원들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원은 그의 비행에 대해 국민에 공식사과 했었다.

한국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국회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휘문고 하키 경기 일정표

27일(화), 28일(수), 30일(금), 31일(토).
시간 : 하오 6 시45분
장소 : Chestwood Arena (400 Chestwood Dr.) (Keele × Finch W.)

구 여권은 7월말로 무효
외국여행시 통용 안돼

한국의 구여권은 오는 8월1일부터 무효가 된다. 한국외무부는 이미 세계각국 이민국및 출입국사무소에 8월1일부터는 대한민국의 구여권은 무효임을 통보, 여권기간이 살아있더라도 구여권으로는 여행을 할 수 없다.

신여권발급업무에 바쁜 토론토총영사관의 여권담당 박종선영사는 "26일 현재 토론토총영사관이 신규발급한 여권은 총 1,161매로 하루 30여건이상 처리되고 있다. 외국여행이 시급한 교민들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하여 신여권신청기간이 마감된 뒤인 8월에도 계속 접수한다"면서 "발급업무는 계속됨으로 한시빨리 여권을 갱신하도록" 촉구했다.

미국 버팔로로 가는 제1국경초소인 피스브릿지 미이민국의 브라운씨는 26일 "한국정부가 최근 신여권의 샘플을 보내, 모든 한국여권은 미국국경에서 대조된다. 8월1일부터는 신여권만 인정하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여행자들이 캐나다및 미국의 공항에서 입국이 지체돼 비행기를 놓치거나 심지어는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 수도 있다는 불평에 대해 브라운씨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입국수속을 지체시키는 것은 없다. 언어문제, 초청장, 신분증 또는 출장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대로 안가졌기 때문에 가끔 지연되는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24일 미국 시애틀을 거쳐 토론토에 도착한 휘문고하키팀도 23일밤 도착 예정이었으나, 시애틀공항에서 한국에서 오는 다른 승객들의 출입국수속 지연으로 비행기를 놓치고 10시간후 다음 비행기로 떠나 24일아침에 도착했다.

한국정부의 여권체제변경은 작년8월1일부터 여행자유화와 더불어 여권발급업무등은 지방관서, 해외공관등에 이전함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일괄체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작년8월1일부터 9월30일사이에 발급된 여권은 수수료없이 발급되며, 10월이후 발급된 여권은 신여권이므로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환율인상에 따른 해외공관에서의 여권수수료 인하문제에 대해 박종선영사는 "외무부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현재 여권수수료로 3만원을 받으며, 해외공관들은 500:1로 환산, 미화 60달러를(캐나다 달러 $72) 받고 있다. 현행환율은 27일 현재 742:1로 한화 3만원은 미화 $40,43에 해당된다.

해외공관에서 취급되는 업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주여권(유학도 포함)의 수수료는 미화 20달러(캐나다$24)이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3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승차장-최근 들어 한인입국자 가운데는 공항승차장까지 나오지도 못한채 그대로되돌아가고 마는 여행객이 속출하고 있다.

중공, 한국방문여권 발급
교민부부 지난5월 서울에

(서울)중공은 외교관계가 없는 한국에 자국민이 방문하는 것을 허용, 명백한 정책전환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공정책의 변화는 지난5월 만주에 사는 한국인부부의 서울방문을 중공당국이 처음으로 허락함으로써 드러났다.

37년만에 고국땅을 밟은 안수룡(61), 이옥림(49)부부는 중공정부가 발행한 4월13일자 여권으로 홍콩을 거쳐 지난5월22일 서울을 방문해 여권기간이 만료되는 8월중순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비공식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몇달동안 중공인 수명이 북경발행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이러한 중공인의 한국방문 허용은 북경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을 자극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월드·컵대회 유치 한국, 90년 대에

(서울24일=연합)한국은 1990년대 월드컵축구대회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월드컵대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24일 체육부는 1988년 하기 올림픽개최후 한국은 1990년 또는 94년 월드컵대회를 주최할 만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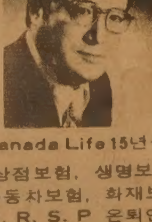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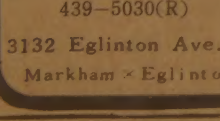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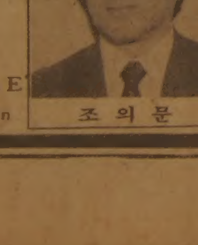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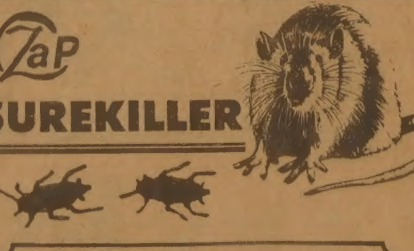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여름철 특별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 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 개방.
단: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ZaP SUREKILLER



아직도 바퀴벌레나 쥐가 여러분 가정에 살고 있는지요!
언제나 여름철이 되면 왕성하는 바퀴벌레·개미·벼룩·좀벌레·닥정벌레등 각종 해충들이신경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상표 "ZAP"Surekiller 는 공인된 약품으로 매우 좋은 효과와 품질로 ONTARIO시장에 널리 알려져있읍니다. 약품구입은 각 한국식품 판매처나, 일반 상점에서도 판매하며 사용이 간편하고 매우 경제적입니다.
"ZAP"Surekiller 는 물과 가루약 두가지로되어 있으며 효과도 동일합니다. 해충 주제나 예방에 대한 문의 환영합니다.
Manufacturel of Insecticide and House Hold Products
THE JOHN LIM CO. 임 태호
전화 : (416)366-0960
368-9018 255-0713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몬트리얼 형무소 폭동

간수 셋죽고 죄수 둘자살

(몬트리얼)약45명의 죄수들을 수용하고 있던 몬트리얼 교외 야샹보형무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간수 3명이 살해되고, 탈출에 실패한 수감자 2명은 자살했다.

1백명내지 150명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 폭동은 지난25일 자살한 2명의 무기수가 탈옥을 기도, 간수들을 인질로 잡으려던데서 비롯했으며, 사망자들외에 간수1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한 간수중 둘은 칼에 찔렸고, 1명은 교수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테니스·리바드(27)씨와, 데이빗·밴·아빌(36)씨는 각각 결혼자녀를 가진 가장이며, 랭드로·르블랑(60)씨는 은퇴전 마지막 순찰도중 변을 당했다.

자살한 죄수는 79년 퀘벡시에서 2중살인죄로 무기형을 받은 이봄·마틴(27)과 금년초 몬트리얼경찰 살해죄로 무기로 복역중인 은행강도 크리스천·페로(2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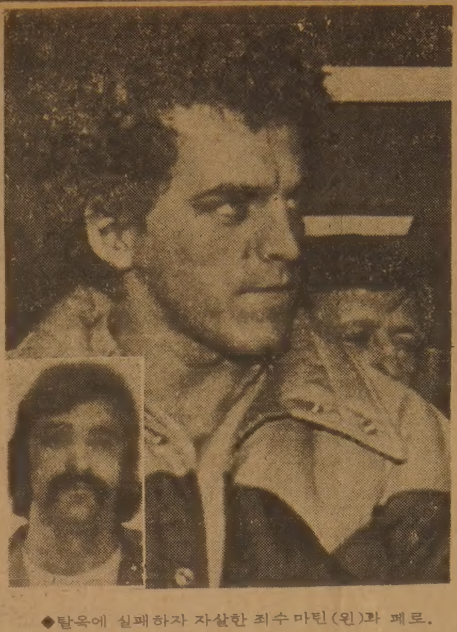
이번 사건은 캐나다역사상 가장 무참한 형무소 폭동으로 보인다.

26일 로버트·캐플란 연방검찰차장은 퀘백주 경찰, 검시관, 연방형무소 조사책임자등에 긴급 사건조사명령을 내렸으므로 사건의 전모는 2주일뒤에야 밝혀질 것이지만, 이같은 대사건의 발단이 될 만한 단서를 지금껏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25일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죄수들이 각기 방으로 돌아가는 밤10시30분경 수명의 죄수들이 무장하지 않은 10명의 간수들을 기습함으로써 비롯됐다.

간수들을 감독실에 몰아 인질로 묶어 놓고 탈출을 하려던 죄수들의 폭동은 20여분뒤 공포를 쏘는 폭동진압대에 의해 끝났으나, 3명의 간수가 수없이 칼로 난자당하거나 교수로 죽었고, 주모2명은 칼로 자결했다.

야샹보형무소에서는 2년전까지만 해도 매년 죄수들이 형무소의 제도에 불만,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었으나, 80년 12월 전면체제 개편이후 잠잠했었다.



◆탈옥에 실패하자 자살한 죄수 마틴(왼)과 페로.

17개팀 자웅겨루어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

토론토한인회체육부가 주최하는 교민야구대회가 이번 주말(31일·토)로 다가왔다.

토론토 코로네이션 파크내 3개 구장에서 열릴 대회를 앞두고 지난 23일 하오 7:30~10:30 한인회관에서 주장회의가 열려, 정규팀 12개, O.B팀 5개 17개팀 참가로 신청팀이 확정됐다.

전체 팀 주장이 참석, 먼저 추첨으로 대진표가 짜여졌다. 이번 대회 OB팀은 만 28~30세 선수를 2명까지 허용한다.

(1)공은 11인치 공을 사용.

(2)주자는 피처가 던진 공이 캐처에게 닿기 전에는 진루할 수 없다.

2회전까지 연장, 그래도 동점일 때는 추첨으로 정한다.

◆대표(정규)팀 대진표 – 17개팀 참전

A조=중앙한인연합교회(주장 정상섭)·자이안트(주장 소영환)·화랑(주장 정철화)

B조=마이티(주장 이동규)·청솔(주장 박운모)·동부장로교회

C조=토론토대학(주장 이인배)·태백(주장 이인재)·미도파(주장 이호진)

D조=연합교회(주장 국승웅)·새한장로교(주장 문경훈)·프레이어스(주장 강용구)

예선리그를 통해 각조1위팀이 준결승에 진출, A조대 B조, C조대 D조의 준결을 거쳐 결승전을 치른다.

◆O.B팀(30세이상)대진표 –5개팀 참전

A조=동부장로(주장 장인택)·천주교대건회(주장 김동천)·연합교회

B조=베델교회(주장 원종성)·해병전우회(주장 이인모)

O.B팀에서는 추첨운이 좋은 B조 2개팀은 예선전적에 관계없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A조에서는 예선리그 득점 상위 2개팀이 준결승에 올라, A조 1위팀대 B조 2위팀이, A조 2위팀대 B조 1위팀이 준결승을 치르고 승자가 결승시 대결케 된다.

시상은 대표팀 1·2·3등외에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이 있고, O.B팀에는 1·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이 수여된다.

경희대 동문회 새회장에 차원봉

경희대동문회는 지난10일 가진 총회에서 이정호회장 후임으로 차원봉동문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2명의 부회장은 정정옥, 박찬도 동문이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132달러와 바꾼 생명

장의행렬차 사고로 조객사망

장지로 가는 장례차 행렬이 돈밀즈·로드와 쉐파드·에비뉴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이었다. 이때 불과 17세의 댄·롤시램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 이보다 앞서 50대의 장례차 행렬은 폴·오코너장의사를 떠날때 차 본넷에 장례기를 꽂고 헤드라이트를 켰다. 어머니를 옆에 앉히고 운전하는 롤시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날 몬힐 사뮤엘·사힙던씨를 알지는 못했으나, 자기 어머니 카우실·롤시램은 12년전 남미 「기이나」에서 자녀7명을 데리고 이민오기전 부터 잘아는 사이였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줄곧 울었읍니다. 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가정에 충실한 착한 사람이었고, 심장마비로 죽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다면서 흐느꼈읍니다." 26일 댄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바로 이때 이들을 태운 차는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차가 교차로 가운데 왔을때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21일 하오4시2분이었다.

"나는 다른차가 달려오는것을 못 보았읍니다. 갑자기 꽝 받히는 소리가 나더니 옆의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었읍니다."

6시간후 49세의 카우실·롤시램은 노스욕병원서 숨졌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경찰 사이드·카의 에스코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이드·카 2대의 보호를 받으려면 13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유가족이 돈을 절약하려다가 조객 1명이 희생된 것이다.

장의사측은 "경찰의 에스코트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132달러는 유가족들에게 큰 돈일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카우실·롤시램이 엠브런스에 실려간지 30분후에야 댄·롤시램은 경찰의 조사에서 풀려나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혐의로 입건됐다.

◆카우실·롤시램.

사고 이틀후인 23일 또 하나의 장례행렬이 먼저와 같은 장의사를 떠났다. 이번에는 카우실·롤시램이 관속에 있었다. 역시 에스코트경찰은 없었다. 이번만은 유가족이 132달러를 아끼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장의사측은 여러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이드·카를 요청했으나, 이상하게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누구도 구할 수 없었다. 이 장의행렬은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

일본인3세 〈코가와〉의 〈오바상〉

이민체험을 문학으로 승화

독자확보 성공, 미국에도 진출

이민자의 체험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과연 어느정도의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민문화는 특수체험으로서가 아니라 별개의 예술·문화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해답을 주는 작품 하나로 일본인 3세 작가 조이·코가와(Joy Kogawa)(46·이혼후 독신)가 쓴 오바상(オバサン)을 들 수 있다.

81년 6월 레스터 & 오펜·데니즈(Lester & Orpen Dennys)출판사가 내놓은 〈오바상〉은 $13.95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듭했고 토론토·스타, 글로브·앤드·메일을 비롯한 각 언론으로부터 절찬을 받았으며 현재 미국출판계에까지 상륙했다.

〈오바상〉은 캐나다작가협회(Canadian Authors Award)상과 상금 $5천, 〈Books in Canada〉 신인소설상등을 탄 외에 레스터 & 오펜·데니즈출판사가 권위있게 선정한 세계적소설리스트에 올랐으며 코가와여사는 토론토시내에 작은집 하나를 제공받았다.

◆작가 조이·코가와.

아주머니, 숙모란 뜻인 〈오바상〉은 밴쿠버에서 자란 작가의 자서전소설로 주인공 나오미의 눈을 통해 태평양전쟁동안 캐나다가 일본인 이민집단에 가한 무자비한 차별대우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불과 40여년전 정당한 시민권자들인 일본인 이민 1~3세들이 사회에서 받은 믿겨지기 어려운 인권유린을 담담하게 그려냄으로써 캐나다인의 양심에 충격을 준다.

36세로 혼자 사는 알버타주의 교사 나오미·나까네는 숙부의 부고를 받고 150마일 떨어진 〈오바상〉의 곁으로 달려간다. 애초에 나오미가 어렸을 때 나오미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간호하러 일본에 갔다가 41년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사건후 캐나다로 오는 길이 막혔고, 아버지는 집단수용소에 갇혔다. 5살짜리의 나오미와 2살위인 오빠 스티브는 아이가 없는 숙부와 숙모와 함께 살게 된 까닭에 방금 돌아가신 숙부와 홀로 남게된 숙모의 존재는 나오미 남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었다.

캐나다는 일본인 이민자들을 위험시했고, 이적행위를 이유로 재산몰수, 집단수용, 강제노동에 동원한다.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집과 부모를 빼앗기고, 숙부·숙모와 함께 사탕수수농장에서 노동하게된 나오미와 스티븐은 아무런 항거없이 역사의 흐름을 맞고 지금은 일본인 후예라는 자각이 거의 없이 살아나간다. (일본인 2,3세들이 유독 게토를 형성하거나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몸 약한 아버지는 노동에 시달려 죽고, 일본에 묶였던 어머니는 히로시마 원폭에 희생되는 비극적 현실은 나오미의 내부에서 『침묵』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캐나다란 나라에서 용기와 믿음을 지닌 한 인물과의 만남으로서 『소리』로 화한다.

소설에서 이 인물은 또하나의 숙모「에밀리」이다.

숙모「에밀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침묵과 말없는 동화가 아니라 캐나다가 일본인에게, 특히 캐나다에서 나서 자란 완벽한 캐나다시민인 일본인 2세, 3세에 행한 인종차별을 행동으로서 고발해온 인물이다. 그녀가 정부에 보낸 탄원서 사본, 당시의 서신, 정부의 답변서, 국회의원들의 발언등을 기록한 신문보도등은 소설 「오바상」에 원문 그대로 게재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믿어지지 않는 역사적 현실과 직접 부딪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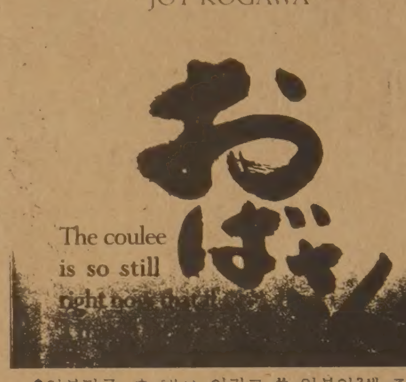
작가는 숙모「에밀리」로 등장된 실제인물은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문서보관학자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한 무명 서지학자의 뜻있는 문서보관행위가 유능한 작가의 힘을 만나 전체 캐나다로 하여금 일본인들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캐나다란 국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조개진 달(A Splintered Moon)』, 『꿈의 선택(A Choice of Dreams)』, 『여리고로 가는 길(Jericho Road)』등 3권의 영어시집을 내놓았던 여류시인 조이·코가와는 소설 〈오바상〉에서도 섬세한 감성과 유려한 필치로 캐나다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이민자적인 소재를 가장 캐나다적인 작품으로 승화한 〈오바상〉은 아직 성공적 작가를 배출치 못한 코리언·캐네디언 문단에 자극과 격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나오미의 숙모「에밀리」가 늘 부르짖었던 "캐나다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캐나다적인 것"이란 말은 우리가 이민 온 이 나라와 이민작가들에 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청신호이다.

(조미래 부장)



◆일본말로 オバサン 이라고 쓴 일본인3세 조이·코가와의 소설 〈오바상〉. 코가와는 본문에서도 일본말을 군데군데 섞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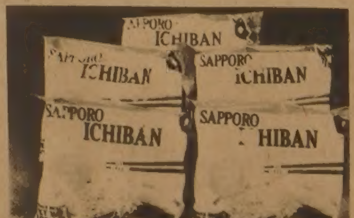
토론토 한국일보는 우수한 이민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신문입니다.

Y 어린이여름학교
2학기 Y 한글학교 학생모집

노인및 성인 영어교실(월~목 : 오전9시반~11시반)무료
어린이여름교실
●일 시 : 8월3일(화)-8월27일(금) (4주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9시반~오후3시
●곳 : Heydon Park Secondary School
(College 남쪽 두블럭 Dovercourt선상에있음)
●대 상 : 유치원생~9학년생 약80명(선착순)
●회 비 : 월 $110 (단, 한집에서 2명이상이면 할인있음)
●과 목 : 한글·한국문화·수영·운동·소풍·영화·미술.
선택 : 태권도·피아노·무용·미술(공작)
개인과외지도 : 기타·영어·수학·과학·불어·미술
●교사진 : 김정숙, 권혁일, 정호영, 김필숙, 우종수, 홍진수, 윤영희, 전수연, 김영훈, 이정희, 강미희, 김영인, 최귀암, 김창열
●스쿨버스 : 월 $120 (문의바람)
●오… 전9시 · 오후3시~오후6시 → Day Care가있음
●문의처 : MR. 김(536-1166) 931 COLLEGE ST TORONTO M6H 1A1

여름 SPECIAL SALE
○ 기간 : 6월25일~12월25일까지
※한밭식품 CASH레지스터 영수증을 모아오세요.
$200.— 마다 사뽀로라면 1BOX 무료
$300.— 마다 가도야참기름 1병(60온스) 무료
$400.— 마다 D.Y. 가주미(50파운드) 무료
그동안 본 식품점을 애용해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D.Y. 가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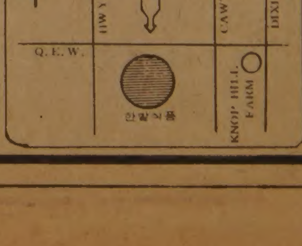


사뽀로라면

가도야참기름

♧ 장미쌀 50LB	$14.95	~~$16.95~~
♧ 햇김(김밥용) 100장	$10.95	~~$14.95~~
♧ 낚지 2LB(1Bag)	$ 7.95	~~$ 9.95~~
♧ 물오징어 1LB	$ 1.29	~~$ 1.79~~
♧ 멍게 1LB Bag	$ 4.99	~~$ 6.99~~
♧ 물해삼 1LB	$ 5.99	~~$ 6.99~~
♧ 회조개	$ 7.99	~~$10.99~~
♧ 조기 33LB (1BOX)	$49.95	~~$59.95~~
♧ 청수냉면(강서·함흥·평양식) 대량입하		

한밭식품
466 SOUTH SERVICE RD.
☎ : 274-5401



라스베가스교민 토막살인

김여인의 아파트에서 아이들 잠든사이 범행

(라스베가스-LA지사)한국여인 김인애씨(31) 토막살해 사건을 담당한 라스베가스경찰국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중 가장 잔인한 케이스였다고 말하면서, 시체의 일부가 발견될 때마다 경찰관들도 얼굴을 돌렸다고 전했다. 베가스지방법원의 얼·화이트 판사는 이 사건이 워낙 흉악성을 띠우고 있기 때문에 범행용의자로 구속된 김일천(35)에 대해서는 예심때까지 보석 을 허락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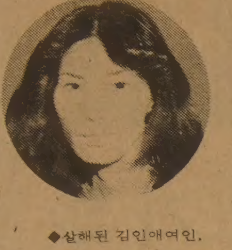
김은 사건직후 LA와 피닉스로 달려가 친척들에게 "내가 인애를 죽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고백, 친척들이 자수를 권해 피닉스에 있는 삼촌이 김을 베가스로 다시 데리고 왔을때 경찰수사반이 덮친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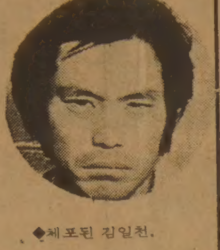
김일천은 전처 김인애여인을 김여인 아파트 부엌에서 죽인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은 피로 물들어 있었으며, 김은 몽둥이와 칼로 죽인다음 도끼로 시체를 토막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막살인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라스베가스경찰서 강력반의 슈와브수사관은 21일 "범인은 흉기를 하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를 사용했다"고 말하면서 "김여인의 시체 일부는 아직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와브수사관은 범행 당시 옆방에 김의 자녀3명(8세·6세 딸2명과 3세의 아들)이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한해동안 베가스에서 50여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나, 이번과 같은 흉악사건은 없었으며, 아마도 베가스범죄사상 가장 잔인한 케이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해된 김인애여인.


◆체포된 김일천.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제5계절〉 독서와 정서

김현순

(미시사가도서관 근무)

◆김현순씨

첫번째 글에서는 이곳 북미 어린이들의 독서경향에 대해서 언급하였고, 지난번 글에서는 어린이의 독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를 몇가지 구체적 예를 들어 보았다.

다시 부언하자면, 어린이의 독서가 자기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며, 자기 주변의 일상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르고 타당한 해결력을 길러 주기도 한다. 한편 많은 독서를 통하여 이해력이 빨라지며, 학교공부에 크나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독서는 우리의 정서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지름길이다. 사실 우리 인간에 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한정된 환경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험을 완벽하게 쌓아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고도의 산업사회속에 끼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무척 복합적인 모든 기계문명을 지배하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척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소외하며,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기계적인 관계, 일상적인 인사말을 주고 받을 뿐, 따뜻한 인간적인 공간이나, 관계가 차츰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활을 흔히 서구적인 신식생활에 익숙해진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어린이들은 감정이 마르게 된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상기해 보자. 봄에는 나물캐고, 보름엔 달맞이 가고, 추석에는 송편빚어 나누어 먹고, 겨울에는 한 이불에 발 넣고 돌아가며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곤 하였다. 아버지에게 매맞았다고 할머니에게 꽃감하나 얻어먹고, 어머니에게 매맞고 집밖으로 쫓겨나서 보던 저녁놀은 무척 아름답기도 하였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정서를 회미하게 해주는 인간적인 관계이기도 하였다.

이민생활에 고달픈 우리들은 모두가 피곤하고 바쁘기만 하다. 항상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속에서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과 편안히 앉아 여유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없다. 설겆이 하면서 질문을 하고, 학교나 가는 아이 등뒤에서 몇마디 잔소리 비슷하게 내뱉게 된다.

독서는 우리의 결함을 메워준다. 민간적인 성숙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준다. 책을 읽으며 꿈을 가지게 되고, 책속에서 무한한 여유와 낭만을 배우게 된다. 책속의 주인공이 되어 공명공감하면서 주인공의 성격이나, 인품을 배우게 된다. 어려운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는 저력과 인내를 배우게 되며, 희생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된다. 많은 책속에서, 어린이는 차츰차츰 한 인격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합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취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빌려가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 진다. 이곳 북구 어린이들은 내가 동양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질문해 보면 좀 어색한 듯 하지만, 몇마디 서로 주고 받는 동안 그 어린이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준다.

그 어린이들의 인간적이면서도 깊이 생각하는 듯한, 그리고도 조리있게 자기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한 자세는 바로이 나라에 "내일"이 있다는 산 증거라고 느끼게 된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36〉

殺意斷層 ③

오빠를 불러 냈으나 긴 한숨만이…

[illegible]

朴男 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3D. T.V. 입체영화 안경판매
It's realer than real
⊙Window Sign 제공
⊙주문 500개 이하 — 72¢
500개 이상 — 70¢
주문신청서— 실협 사무실
☎ : 533-7923~4

여름 수영복 스페샬세일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한국일보

행정罰則 전면再調整

1、998개 非現實·過·輕微 폐단 시정

公害물질流出「過失」도 처벌…休廢業 不申告는 과태료만

정부는 현행5천2백26개의 행정벌칙가운데 현실과맞지않는 1천9백98개의 행정벌칙을 재조정했다.

법무부가마련, 22일 국무회의의결을거쳐 확정된 행정벌칙정비요강은 ▲벌칙제정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 벌금액이 비현실적이거나 ▲법정형량이 과중하여 국민법감정에 부합하지않고 ▲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불필요하게 과잉규제, 다수국민을 전과자로만드는 폐단을 막는데 중점을두었다.

이날 정비된 행정벌칙내용중 ▲교육법 제66조중 1 9 0년이후에 출생한자중 취학하지않은 문맹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못한 본인을 처벌하는것은 법감정에 맞지않으므로 이를폐지하고 ▲환경보전법제68조중 「특정공해물질을 바다또는 산림에 고의로 버리는행위」만 처벌하고있으나 「과실에의한 행위」도처벌할수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천법 제79조중 「허가없이 하천산출물을 취득한행위」만 처벌하고있으나 하천산출물의 보존을위한 「허가없이 반출한행위」도 처벌할수있도록했다.

또 경미한위반사항에 대한 과잉규제를 완화하기위해 각종영업의 휴업·폐업등을 신고하지않을때나 ▲각종장부를 비치해야할 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등기 또는 공고를해야할 경우에 이를 태만히한 행위등에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약사법제74조와 의료법제66조중 무면허 약사행위나 무면허 의료행위를했을경우 최근법률기준으로해 징역형의 상한을 5년으로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3백만~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서민생활보호를위해 석탄수급조정에관한 임시조치법 제16조에 「석탄의 매점매석」「출고량의 조절」지시를 위반한행위」를 현재 1년이하의징역 또는 1백만원정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 형량을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현행 형량이 과중하여 인하한예를보면 고물영업법 제26조는 「고물행상신고의무를 위반한행위」를 1년이하의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한 규정을 30만원이하의 벌금으로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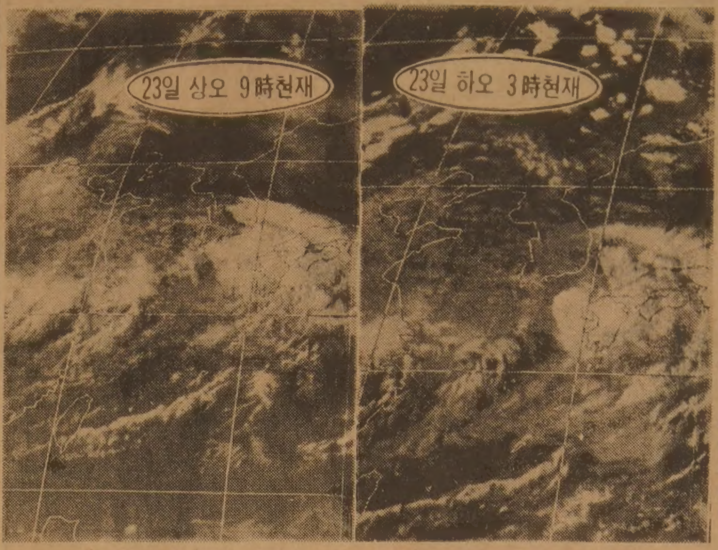
이번에 조정된 행정벌칙정비내용은▲형량조정 1천8백14개▲범죄의 성립요건 조정 54개▲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꾼것이 70개이다.

莞島에 집중豪雨

珍島등 2백㎜ 이상…4명숨져

가옥 倒壞·농경지浸水…待避

비구름 빠져나가 주춤…28·30일 다시 비



◇23일 상오 9시께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짙은 비구름이 끼어있어 남해안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사진㊧) 하오 3시께에는 이 구름이 동쪽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버려 더이상 비가 내리지않고 있다(사진㊨). 【23일상오 9시·하오 3시현재기상위성이보낸 기상사진】

지난22일밤부터 호남과 영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전남지방은 완전해갈됐고 전북과 경남지방에는 큰도움을주었으나 가뭄이 가장 심한 경북지방은 지역에따라 한때 소나기와 이슬비만 감질나게 내렸을뿐이다.

이번비는 남해안지역에 특히 많이내려 전남 莞島 珍島등 일부해안지방에서는 2백㎜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일부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피서객들이 대피하기도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비가 23일 하오부터 그치기시작, 중부와 영남지역에는 지역적인 소나기만 내릴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초24일까지 예상했던 비가 그친것은 중국양자강부근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남해안에 접근함에따라 비구름이 남쪽으로 밀려 나갔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기상대는그러나오는28일께는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다시 한차례 내리겠고 30일께도 전국적으로 비가 올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23일하오3시현재 전국의 강우량은 다음과같다.

▲光州=49.7㎜ ▲木浦=108㎜ ▲麗水=170.1㎜ ▲濟州=6.6㎜ ▲全州=18.2㎜ ▲群山=8.2㎜ ▲大邱=12.6㎜ ▲晋州=86.2㎜ ▲浦項=12.0㎜ ▲忠武=101.7㎜ ▲釜山=83㎜ ▲蔚山=20.5㎜

【光州】23일상오 전남부 해안 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莞島에서 2명이 사망한것을 비롯, 珍島에서 집이 무너지면서 2명이죽고 麗水에서 1명이 실종돼 인명피해는 모두5명으로 늘어났다.

23일새벽 3시께 전남珍島郡智山面인지리 高화洪씨(73)가 집중호우로 초가가 무너지자 밖으로 대피하다 집옆하천에 실족,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이날 새벽6시께 珍島郡臨淮面南洞里 金甲錫씨(49)가 집이 반파되는바람에 압사당했다.

또 이날상오11시께 麗水市德忠洞1335 黃文圭씨(45)가 자기집앞하천에서 떠내려가는 목재를건지려다 실족,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됐다.

이밖에도 珍島지방에서는 농협창고에 보관중이던 농약 1천포과 맥주맥 6백50가마가 침수됐으며 도로 7개소(4백90m)와 교량 3개소가 유실됐고 가옥3동이전파, 2동이 반파됐으며 선박 9척이 파괴됐다.

또 莞島지방에서는 莞島邑1區일대 3백여가구가 침수됐고 珍島지방에도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했다.

木浦시내도 이날상오까지 1백8㎜가내려 龍塘洞 山亭洞등 일부지역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버스터미널등이 물에잠기기도했다.【聯】

"信念으로 國力 키우면 統一 의외로 빠를수도"

全대통령、平統위원만찬致辭

全斗煥 대통령은 23일 『北韓공산집단은 최근 시대착오적인 金正日世襲體制 구축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있으며 이러한 내부의 저항과 불만을 은폐하기위해 밖으로 突破口를 찾아 휴전선에서의 銃擊사건과 漁船拉北등 각종 對南도발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굳은의지와 슬기로 대처해 나간다면 이 격동과 昏迷의 시기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과 통일을 위한 하나의 轉機로 활용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들을 위해 만찬을 베푼 자리에서 致辭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는 南北으로 分斷된지 37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통일로 향한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전제하면서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우리국민 모두가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가지고 단합속에 國力을 꾸준히 신장해 나간다면 멀지않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우리의 꾸준한 평화통일노력은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民族和合民主統一방안」에 대해서도 일부親北韓 非동맹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국가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가 단합하여 국가발전을 지속해 나간다면 南北韓간의 國力의 격차가 더욱 벌려져 北韓공산집단도 결국은 武力赤化통일의 헛된 꿈을 포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처럼 大勢와 명분이 우리쪽에있으므로 북한측도 언젠가는 우리의 對話再開노력과 평화통일방안에 호응해오지 않을수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라크 高速철도 受注

現代·南光서 施工 9억5천9백만弗 규모

국내건설업체가 해외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단일공사로서 최대규모인 9억5천9백만달러짜리 공사계약이 체결됐다.

23일 업계에따르면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담회사인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KOCC·사장 成百銓)는 지난18일 이라크신철도건설청(NRIA)과 이 발주한 이라크내륙북부지역의 하디다-바이지-키르쿠간 2백73㎞(부선구간포함 총연장은 4백91㎞)고속철도건설공사를 9억5천8백99만6천2백37달러에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된공사는 지난79년 現代건설이 완공, 해외건설사상 최대규모로꼽혀온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산업항건설공사계약액 9억4천만달러보다도 2천만 달러가 많은 액수이다.

KOCC는 국내 건설업체들로구성된 해외건설 수주전담회사이므로 실제공사는 회원사인 現代건설과 南光토건이 맡게된다.

당초 이 고속철도건설공사는 작년부터 KOCC가 수주활동에 나서고 共榮, 미륭, 극동, 南光, 現代등이 실제 공사참여준비를 해왔으나 어음사건으로 共榮이 제외되고 미륭, 극동 두회사는 기술부문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 결국 現代와 南光이 시공을 맡게된것으로알려졌다.

ODA17億등 40億弗

日、經協규모 回答代案전달

外務部、不受諾표명

日本정부는 23일 韓·日經濟協力에 관해 지난번 李範錫외무장관이 東京外相회담에서 제시한 새로운제안에대한 日本측의 回答代案을 한국측에전달했다.

이날하오 고또·도시오(後藤利夫)駐韓공사가 崔東鎭 외무부亞洲국장을 방문, 전달한 日本측 案은▲ODA(정부개발협력基金) 17억달러▲수출입은행과 민간混合融資 11억달러등 40억달러인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당초 60억달러 金額을 ODA조건으로할것을 요구했으나 日本은 지난4월29일 야나기야(柳谷謙介) 외무성심의관을 통해▲ODA 15억달러▲수출입은행융자25억달러등 총액40억달러의 1차代案을 제시, 한국측의 거부로 經協교섭이한동안교착상태에 빠지기도했는데 李장관이 지난6월22일 규모는 日本측이 제시한 40억달러를 받아들이되 그내용을▲ODA 23억달러▲수출입은행융자에의한 商品借款17억달러로 修正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日本은 李장관의 새로운제안에대해 그간 大藏省, 通産省, 경제기획청등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친 새로운 타협안을 이날 한국측에 전달한 것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이날 『日本측回答案은 기대에 미치지못하며 수락하기 어려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시, 받아들이지 않을뜻을 강력히 示唆했다.

이에따라 외무부는 이달말이나 8월초에 東京에서 열릴예정인 韓·日 實務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崔東鎭국장을통해 日本의 보다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日本측의 回答案 전달에는 고또公使외에 야나이·준지(柳井俊二)駐韓공사와 오구라·가즈오(小倉和夫)외무성 北東亞과장등도 同行했는데 오구라과장은 이자리에서 지금까지의 日本정부의 관련부처간에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학교施設기준改正

體育場 축소가능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23일 학교시설설비基準令을 고쳐 初·中學校의 體育場기준면적을 평균30% 줄일수 있게했다.

개정령은 또 유치원의 보통교실의 최소기준면적을 66㎡에서 50㎡로완화하고 유치원의 필수시설로 돼있는 원장실과 사무실, 숙직실, 창고를 관리용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私設講習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등록을 요하는 사설강습종목에 주산·부기·타자및 속기를 추가시켰다.

民韓、곧黨論

實名예금 補完전제

내년7월實施 찬성

民韓黨은 정부의7·3경제조치에대한 최종적인 黨論결정에앞서 23일 預·積金및 株式등의 實名制실시시기를 정부방침대로 「내년7월1일부터」하자는데 찬성하기로 했다.

民韓黨은 정책심의회주관으로 이날상오 국회經科·財務위원연석회의를 열고 實名制실시시기를 ▲문제점補完후 내년7월1일부터 하자는 案과 ▲4~5년간 實·假名 倂用후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내년7월실시」를 일단 정책심의회案으로 채택했다.

정책심의회는 이날 孫泰坤, 李載根, 洪思德의원으로 책임代案작성을 위한 文案정리小委를 구성, 24일 7·3조치補完策을 발표키로했다.

實名거래制 實務協구성

財務部

재무부는 7·3실명거래제도의 실시를 위한 관련법규를 마련하기위해 실명거래제 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 오는 26일 1차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경제기획원차관보, 감사원 제1국장, 재무부 1·2차관보, 상공부 2차관보, 농수산부 1차관보, 법무부 송무담당관, 법제처 2국장, 청와대 정무장관실 보좌관, 국세청차장, 한은부총재, 은행감독원부원장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무부 이재국장이 간사로 선임되었다.

실무협의회는 그밑에 특별조치법 개정작업반, 금융규정개정작업반, 조세법규개정작업반, 금융거래전산작업반등 4개실무작업반을두어 관련법령의재정및개정작업을 담당하게된다.

社會漫評

열두개중 열한개가…

地平線

사람의 육신을 물건으로 치자면 겨우 1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산한 사람은 미국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해리·몬센박사였다. 3년전의 계산이니 지금은 좀 환율로 쳐서 7천4백원이 좀 넘는 값이다. 뼈대를 이루는 칼슘이 가장 많고, 인산·칼슘·마그네슘·쇠·구리·요오드등을 값으로 친 결과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7천4백원의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예를들어 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기계팔, 다시 말해서 정교한 인공팔을 달자면 수백만원이 든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험회사가 개발한 소위 「보스턴 팔」은 3천달러, 그러니까 2백20만원을 넘는 값이다. 유타대학팀이 흑연과 강화플래스틱으로 만든 것은 1만달러(7백40만원). 인공심장이나 인공장기는 벌써 전세계적으로 한해에 5억내지 7억달러(3천7백억~5천1백80억원)치가 거래되고있다한다.

그러나 2백20만원의 보스턴팔도 미국에서 92명이 쓰고있고, 인공심장의 경우엔 3시간 목숨을 부지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눈부신공학기술의 발달로 이론상 「6백만불의 사나이」의 시대가 가능하다는것뿐이다.

▼작년7월 미국 텍사스 심장연구소의 덴톤·쿨리박사는 딴 사람의 심장을 이식할 때까지 한 심장병환자에게 54시간동안 인공심장을 넣어준 적이 있었다. 인공심장을 단 송아지가 거의 9개월동안 산 기록이 있긴하지만 정교한 인간의 기관을 기계로 바꿔치기보다는 또다른 사람의 장기로 바꿔치는 것이 보다 확실한 길이다. 소위 「이식수술」이 그것이다.

▼현미경 수술 전문가인 미국의 헤이허스트박사는 죽은사람의 장기나 팔·다리를 산사람에게 이식하는 의학혁명이 일어나고있다고 말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거부반응」이지만, 멀지않아 해결될것이라고 그는 내다본다. 사람들은 죽기전에 피 한되 뽑아주는 것처럼 죽은뒤 자기몸의 장기를 떼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고있다는 것이다.

▼죽은뒤 자기 몸의 장기, 이를테면 눈이나 콩팥을 남을 위해 기증하는 것은 아직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자선행위다. 눈은행이나 콩팥은행은 커녕 혈액은행도 모자라는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육신은 사후로 죽었지만 눈과 콩팥을 남기고간 용기(23일자 한국일보11면보도)는 그런 뜻에서 크게 공헌했다고 할것이다. 그용기를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되씹게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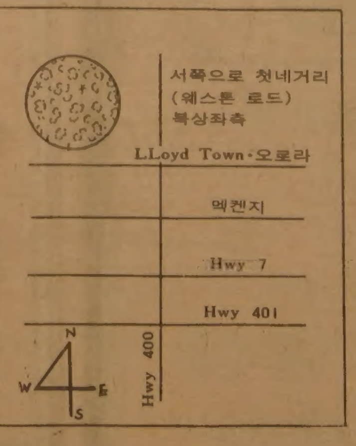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제3회 대사배 교민친선 골프대회

1982년도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배 교민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8 월 7 일(토) 오전11시
○장 소 : CARRING ON GOLF CLUB
○회 비 : 회원 $30, 비회원 $40
○시 상 : 그로스 1, 2, 3등, 네트 1, 2, 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행운상,
장려상, 레이디상, 참가상

※알림 : 앞으로의 각종대회일정



앞으로의 각종대회 일정

일 시	장 소	주 최	참가범위
7월31일(토)	Castlemore	경동 중·고동창회 (고교대항및 개인)	OPEN
8월 2일	리치몬드·힐	실협인협회	회원및 게스트
8월 7일	Carring on	골프협회	OPEN
8월21일	리치몬드·힐	한맘골프회	회 원
9월5, 6일	Castlemore	골프협회	Top 10
9월18일	리치몬드·힐	라이온스클럽	OPEN
10월 2일	Castlemore (예 정)	골프협회	회 원 (신규회원 환영)

주 최 : 한인골프협회 후 원 :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토론토 총영사관

이,PLO거점 強打

1개월만에 레바논서 최대作戰

◇곳곳에 치솟는 연기　22일 단행된 이스라엘공군기들의 폭격을 받은 西베이루트내의 건물 곳곳에서 연기가 치솟고있다. 【베이루트 (레바논) 22日 AP電送=聯合】

베카 시리아陣地도 猛爆
이軍 5명殺害행위 보복

【베이루트22日AP UPI=聯合】레바논침공 이스라엘군은 22일 하오 거의 1개월만의 최대의 군사작전을 전개, 西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거점들에 맹렬한 공습을 가하는 한편 레바논 동부 베카계곡의 시리아군진지에 대해서도 제트기 탱크 대포를 동원한 대규모공격을 벌였다. PLO의 와파통신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지난 6월25일이래 27일만에 처음으로 전개한 西베이루트공습으로 62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부상했다고 말했다.

와파통신은 이스라엘공군기들이 베이루트중심지와 국제공항사이의 민간인거주지역을 공격했으며 사상자의 대부분은 아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또 이스라엘이 10일간의 휴전을 위반하고 베카계곡의 시리아군기지에 포격을 가했으며 시리아군은 이에 반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사령부는 이스라엘전투기들이 이날 하오5시(한국시간23일0시) 西베이루트의 PLO거점을 공격하고 뒤이어 베카계곡에 포격을 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공격은 21일 PLO의 기습으로 이스라엘군5명이 살해된데대한 보복으로 이뤄진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또 23일새벽1시30분(한국시간)을 기해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하고 東部레바논에 대한 공습및포격을 중단했다.

하비브 시리아訪問
레이건 새指示받고

【다마스커스·워싱턴22日AP UPI=聯合】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는 레바논사태를 종식시키기위한 중재외교를 재강화하라는 레이건美대통령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22일 베이루트로부터 급거 다마스커스에 도착했다.

시리아정부지도자들은 하비브특사가 23일상오 아사드대통령및 압델·하림·하담외상등 고위 시리아지도자들과『긴급하고도 매우 중요한』회담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루트攻擊 중지
埃 이스라엘에 촉구

【카이로22日聯合】이집트는 22일 서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지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했다.

이집트외무성대변인은 레바논주둔 시리아군과 팔레스타인군사목표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이『국제법과 人權 그리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바스라港서 大血戰
이란·이라크軍 雙方수천명 死傷·裝備파괴

【바스라·런던22日聯合AP=聯合】이란·이라크양국군은 이란군의 對이라크 월경공격열흘째인 22일 이라크의 전략적인 석유수출요충 바스라항부근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쌍방모두 수천명씩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장비손실을 입은것으로전해졌다.

이라크의 공식코뮈니케는 이란군이 22일밤 월경공격후 세번째로 바스라부근에 새로운대규모 공세를가했으나 이라크군이 즉각 반격에 나서 적2개여단을 완전히 격퇴했다고 발표했다.

이 코뮈니케는 이라크군이 이전투에서 이란군 수천명을 사살하고 상당수를 생포했으며 수많은 적탱크와 장갑차를 파괴 또는 노획했다고 밝혔다. 이 코뮈니케는 이란군이 이날밤 바스라 일원에서 세갈래 방면으로 나눠 4㎞나 진격해 들어왔으나 한곳에서는 완전히 격퇴됐고 나머지 두곳에서는 맹렬한 반격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 코뮈니케는 이라크측의 피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이라크군 야전사령관은 이라크측의피해가 경미하다고전했다.

한편 런던에서 청취된 이란국영 테헤란방송은 이란군이 이날밤 바스라동쪽지역을 두갈래로 나누어 공격, 적4개사단을 섬멸했다고 보도했다.

이방송은 양측간의 전투가 이라크 남부전선 약2백50㎞에 걸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란군 코뮈니케는 라마단작전의 제2단계를 장식하는 이전투에서 이라크측은 고급장교들을 포함하여 2천1백여명이 死傷했다고 밝혔다.

코뮈니케는 이어 이란군이 이날 이라크 領內로 수㎞ 더 진격, 샤트·알·아랍水路의 동쪽에 위치한 카티반강까지 전선을 확대했다고 말했으며 이란관영 IRNA통신은 이란군이 이날 현재까지 이라크 영내로 총22㎞ 진격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中共, 홍콩全域흡수
九龍半島포함 97년까지
英 가디언紙

【런던22日AP=聯合】중공은 영국조차지인 홍콩에 대해 新界는 물론 1842년의 南京條約과 1860년의 北京條約에 의해 각각『영구租借』된 홍콩섬과 九龍반도까지를 포함한 홍콩전지역을 오는1997년까지 흡수할 의도임을 밝혔다고 런던의 더·가디언紙가 22일 보도했다.

가디언紙는 중공당부주석 鄧小平이 지난주 北京을 방문한 홍콩과 마카오 거주, 좌익계 중국교민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수년만에 처음으로 홍콩문제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중공당지도층이 현재 홍콩의 장래문제를 활발히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홍콩의 장래문제에 관해 이제까지는 1898년에 조차, 오는 1997년에 만료되는「新界」에 한해서만 논의돼왔으나 중공은 현재 불평등 조약으로 영구조차된 홍콩섬과 九龍반도를 포함한 홍콩 전체를 되찾을의향을 표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佛、美禁輸조치(가스管장비)正面도전
"蘇에「美기술」제공하겠다"

【파리22日AP UPI=聯合】프랑스는 22일 미국의 對소경제제재조치에 정면도전, 미국과 기술제휴관계에 있어 알스통·아틀란티크발전설비회사에 대해 미국서 개발한 기술을 소련의 시베리아가스관건설사업에 제공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미국의 對소「경제전」에 치명타를 안기는 동시 미·서구간의 긴장관계를 심화시켰다.

프랑스의 이같은 결정에대해 레이건미행정부는『미국이 취할수있는 여러가지 對프랑스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시베리아가스관기술제공문제를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기시작했다。

프랑스정부는 이날 수상실을통해 발표한 짤막한 설명에서 『프랑스기업들이 소련과 맺은 시베리아가스관부설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美國이 지난6월18일에 취한 전반적인 對소경제제재조치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프랑스의 이같은 발표가있은후 래리·스피크스백악관부대변인은『프랑스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對소가스관장비금수조치를 강행할것』이라고 다짐하고『상무성과 국무성 전문가들이 프랑스에 취할수있는 여러가지 보복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브라 쯤이야… 한 소년이 코브라 앞에서 겁도없이 혀를 널름 내밀고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코브라는 지난 20일부터 센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있는 실내장식품 전시회에 프랑스의 알랭·쉐르베씨가 출품한 놋쇠로 만든것. 하지만 전시장의 관람객들은 이곳을 지날때 한번쯤 섬뜩함을 맛보았다고. 【센프란시스코=UPI】

美·유럽 위험한關係

"蘇천연가스管부설 工事强行"에 英·獨·伊등 加勢

"契約끝난 去來취소는 獨斷 美는 왜穀物수출 계속하나"

미국의 對蘇경제재제조치에 프랑스가 정면도전하고 나서고, 英國 서독 이탈리아등도 이에 가세함으로써 美·유럽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있다.

당초폴란드계엄선포 배후에 소련이 개입했다는이유로 미국은 지난해 12월 對蘇경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서방동맹국들에게 이에 동조해줄것을 요청했었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소련의 천연가스관부설공사。만성적인 외화부족과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소련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이 공사는 공사비만도 1천5백억달러가 소요되는 大役事다.

소련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지원을 프랑스 서독 영국등 유럽국가에 요청했다.

소련은 이에대한 대가로 공사가 끝나는 84년부터 공사에 참여한 서방국가들에 연간2백4억㎥의 천연가스를 싼값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소련은 對西方 천연가스 판매수입으로 연간 50억~1백억달러를 벌어들일수 있다. 서로에게 이익이되는 이공사를 위해 서구국가들은 자금과 기술을 대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對蘇 경제제재조치는 차관및 기술공여계약이 이미 끝난뒤에 나온것이었다.

그동안 유럽국가들은 미국측의 對蘇제재동조요청에 반발과 분노를 표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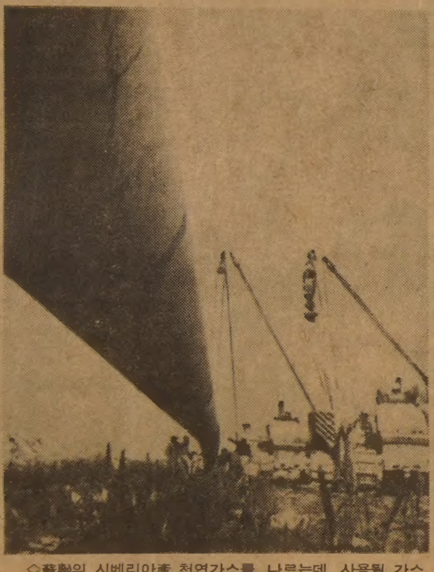
이미 계약까지 끝낸 거래를 취소하라는 것은 미국의 獨斷이라고 여겼기때문이다. 프랑스정부역시알스톰·아틀란티크社가 제조한 대형증기터빈을 소련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프랑스기업들이 소련과 맺은 시베리아 가스관부설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반발을 넘어 분노의 감정을 촉발시킨것은 지난달18일 레이건 대통령이 유럽국가들의 불만의 소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對蘇제제를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시킨데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기술제휴로 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일체를 對蘇금수 품목에 포함시킴으로서 유럽국가에서 생산되는 수10억달러어치의 건설장비 품목들을 판매할수 없게했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스스로 소련에 곡물을 수출하면서 유럽국가들에대해 장비수출을 못하게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이 소련과의무기감축회담을 추진하고있는 마당에 對蘇경제제재를 늦추지않는것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폴란드에 계엄이 계속되고 있으며 소련이 폴란드사태의 완화를위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점, 유럽국가들이 소련의 천연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하게될 경우 동서관계가 위협을받게된다는점, 거액의 가스관매대금에 힘입은 소련의 군비강화 우려등을 내세워 對蘇 경제제재를 늦출수없다고 맞섰다.



◇蘇聯의 시베리아産 천연가스를 나르는데 사용될 가스管이 東部프랑스의 某處에 누워있는모습。이 사진은 촬영일자가 밝혀져있지않은 보관용 사진이다. 【파리22日AP電送=聯合】

이같은 레이건행정부의 주장은 소련이 서방의 기술을 입수하지못하면 공사를 진행할수 없고, 그결과 군비지출이 삭감될것이며,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자유화를 기할것이라는 美국방성의 분석을 반영한것이었다.

이것은 힘의 優位를 주장하는 美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장이기도하다.

만약 레이건 대통령이그가 추구해온 對蘇대결정책

레이건 "큰돈 벌 蘇 軍備확장" 우려

을 당장 포기한다면 미국인들은 그를 政見없는 대통령으로 인식할것이고 그것이 레이건 대통령을 더욱 강경쪽으로 기울게하는 원인이 되고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편 초강대력인 美蘇양국에의해 국제정치가 독점되는 것을 가장 불만스럽게 여겨온데다 평소유럽주의를 표방해온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對蘇경제조치에 정면도전하고 나선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의對美도전이 서방국가들로 번져가 美·유럽관계가 악화될 경우 소련을 궁지에몰려했던 레이건행정부가 오히려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점을 미국및유럽국가들도 충분히 인식하고있기 때문에 美·유럽관계에는 스스로한계가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23일TV회견에서『프랑스정부는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있다. 지난 미테랑 대통령은 그가 취임하고나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으며 이를무시할수 없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미테랑 대통령의 입장을 잘이해하는듯이 말했다. 【林鍾乾 기자】

古界의社說

팔人主權인정돼야 마땅
●선데이·타임즈(英·21일자)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규모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을수 있으나 이미 이번 침공은 이지역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의침공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을 일개 군사집단의 지위로 끌어내렸다.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문제해결의 구실로내세우는것이 안보내지는 안보에 대한 우려인만큼 이번에 전개된 새로운 상황은 해결의 기회를 높여야만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권인정과 이들의 팔레스타인지역으로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훌륭한 행동은 이같은 행동이 더군다나 팔레스타인人의 합법적 권리와 자격인정을 분명하게 천했던 캠프 데이비드협정에 부합하는 일이 될것이다.

베트남威脅 아세안團結
●내이션·리뷰(타이·21일자)

구엔·코·타치 베트남 外相은 최근 캄보디아주둔 베트남軍의 철수를 발표하고 동시에 베트남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내의 공산반란을 지원하겠다고 위협한바 있다.

이로 미뤄 타치는 일종의 相應조치를 모색하고 있는듯이 보이나 최근 인도지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주시해온 사람들은 베트남이 반대급부없이 모든것을 원하고 모든것을 손에 넣겠다는 의도임을 잘 알수있을 것이다. 타치는 내심으로는 하노이당국이『大印度支那聯邦』의 꿈을 이미 성취했고 그자신 인도지나전체를 대변할수있는 권위와 힘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생각하는것 같다.

아세안국가들은 국내적으로 강력한 힘을 보유하고 있고 또 주권존중을 신봉하고 있는 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타치는 아세안의 이같은 결의를 싱가포르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을것이며 앞으로 콸라룸푸르와 방콕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하게 될것이다.

"失業者에 職業을"…기도회
美 7천5백여명 한競技場서

海外토픽

경제불황의 여파로 실업자가 크게늘고있는 미국에서는 7천5백여명의 실업자들이 최근 피츠버그의 한경기장에서 직장을주고 노사간의 분열을 치유시켜주도록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모임을개최。

특히 철강산업의 불황으로 실업자가 많은 피츠버그근로자들에게 기적을 내려주도록 기도회를 개최했다는 한간부는 이번집회가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이『이를 해낼수있다』는 신념을 갖기위해 마련된것이라고 그성격을 설명。

이번집회에는『7백클럽』의 벤·킨출로、밥·맥두갈등 유명한 복음전도사들이 많이 참가했는데 전도사들이 설교를 하는동안 군중들이『할렐루야』『주를 찬미하라』『아멘』등을 외쳐 설교가 중단되는등 집회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피츠버그=UPI】

야마또魂재건에 熱
★日映畵 도오죠를 英雄化

「사랑하는 조국이여」「사랑하는 사람이여」「사나이는 묵묵히 전장으로 떠난다」

이란과 이라크전쟁이나 포클랜드사태 당시 영국 또는 아르헨티나 얘기라면 몰라도 다시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입만열면 열변하는 평화애호국 일본의 영화광고의 한 제목이다.

오는 8월초부터 일본전국에서 개봉될 영화「大日本帝國」은 전쟁의 원흉인 도오조수상을 영웅시하는가 하면 3시간동안 일본인의 이른바 야마또(大和)魂(일본정신)을 북돋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영화도 재작년부터 露日전쟁당시 旅順함락을 묘사한『203고지』작년의『연합함대』에 이어 올해에는『大日本帝國』으로 군국주의 찬미를 에스컬레이트하고있다。

신문에 나오는 영화광고선전문은 절대로 장사속을 노린 혼의 발로라고만 볼수 없는 일면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중의 한사람이기도한 에또·준(江藤淳) 東京大교수는『이영화를 보고 일본인이 드디어 자기자신의 얘기를 하기시작한 것을 느꼈다』고 광고에썼다。【東京=聯合】

金日成花 전역보급
연구단까지 만들어

【서울=聯合】北傀는「金日成花」라는 南方花를 北韓全域에 번식시키기 위해 일단의 식물학자·원예가들을 동원, 이의 조속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北傀관영 중앙통신이 18일『식물학자및 원예가들이 金日成花를 세포공학적 방법으로 조직배양하여 현재 수만그루를 번식시켰다』고 선전、北韓全域에서의 金日成花재배 사실을 드러냈다。

北傀는 이 偶像化꽃을 대대적으로 짧은시간내 재배·번식키위해 이른바「金日成花연구단」까지 구성、종래의 씨앗·꺾꽂이·포기가르기등에의한 완만한 번식방법을탈피、조직배양법을 이용、짧은시간내 수만그루를 번식시킬수있게됐다고 선전했다。

메아리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격언을 만들어 낸것은 영국사람들이다. 이들은 또「법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정은 적어진다」고 불평어린 격언을 들려준다.

일반인들은 법의 존재를 그다지 의식 않고 살아 간다. 마치 공기를 의식 않고 숨을 쉬듯이… 법의 울타리도 공기처럼 언제나 벗어나 살수없는것이 현실이다.

「법이 너무 많아 한가지라도 어기지않고는 숨을 쉴수가 없다」고 스타인벡은 그의 작품「불만의 겨울」에서 불만을 터뜨려 놓았다. 법없이도 살아 갈수 있는 사람은 성인군자라 하지만 오늘의 복잡한 사회구조에선 이 말은 예처럼 그대로 통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법의 禁制를 따를것과 함께 법의 활용과 보호가 절실한 시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변호를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게 된다. 형사소추나 민사사건의 분쟁해결만이 변호사의 모든 업무인 시대는 지났다.

사회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세법, 증권, 해상, 금융, 보험, 국제계약등「법의손」이 움직여야할 일은 너무 많다. 특히 경제의 국제화는 전문법률가의 필요성을 더욱 높였다. 국제계약에서 법률지식의 부족과 경험미숙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경우는 흔히 들어온 이야기다.

변호사 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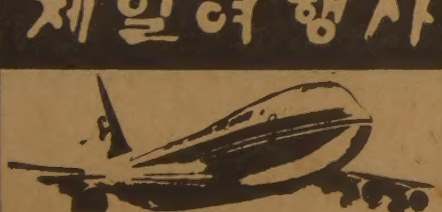
법률사무의 전문·세분화에 대응, 미국이나 유럽에선 대규모의 法務法人이 보편화 되어있다. 2백~4백명의 변호사들이 합동사무소에서 전문분야별로 사건을 처리한다. 법무법인은 종합병원의 기능을 연상하면 알기 쉽다.

법무부가 시안을마련한「변호사회사」는 종합병원 같은 법무법인이다. 사건은 공동수주하되 업무는 전문분야별로세분화시켜해결하게된다. 의뢰자는 변호사 선정의 고민을 덜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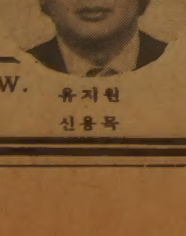
법률분쟁은 중재와 상담으로 예방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것이다. 인도의 마하트마·간디도 생전에「변호사개업 20년동안 사적인 타협이 이룩되도록 전념했다」고 술회했다.「예방법학」의 정신을 일컬을수 있는 대목이다.

「法治의 이상」은 법의 생활화와 친근으로 달성할수 있다. 변호사회사 제도의 도입으로 법과 더 친숙해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의 자질향상도 새삼 다져 둘 일이다.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빙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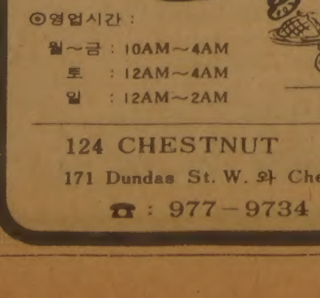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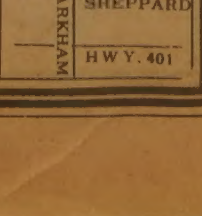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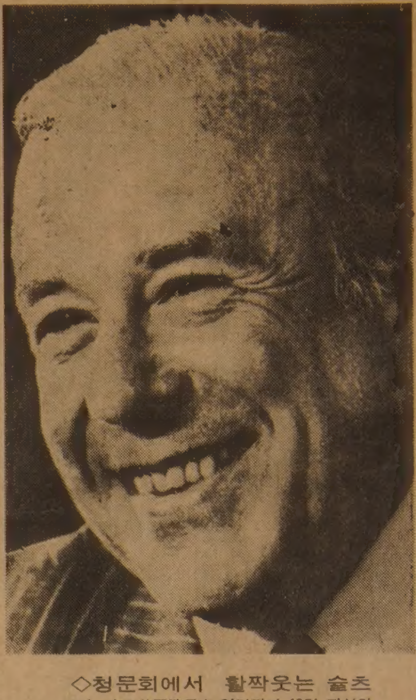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美上院 認准청문회를 통해본美「새國務」의 進路



◇청문회에서 활짝웃는 슐츠
조지·슐츠美國務長官 임명자가 13일 자신의 임명인준에관한 上院外交委 청문회에서 활짝웃고있다. 【워싱턴13일UPI電送=聯合】

뉴스診斷 워싱턴 李文熙 특파원

윤곽드러낸 슐츠外交

骨格은유지…「温和」로 部分수정

이스라엘爲主탈피…아랍과均衡 모색

對蘇관계는 強硬바탕에 協商여지도

駐韓美軍등 한국문제엔 基本태도 不變밝혀

【워싱턴15日=李文熙특파원】이곳시간으로 12일과13일양일간 美上院 外交委에서 조지·슐츠 신임 국무장관 임명 동의를위한 청문회를방청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前任인 헤이그장관의 청문회 분위기와는 딴판이었다고 말했다.

헤이그장관의 청문회가 무려5일간에걸쳐 신랄한 질문이 계속된데비해 슐츠에대한것은 동의에 아무런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측처럼 예상된질문의 계속이었다.

61세의 슐츠장관은 모습에서부터 답변의 내용에이르기까지 팀플레이어라는 그의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문에 철저히 자신은 대통령의 對外정책을돕고 보좌하는 입장임을 명백히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있는 경제제재의 외교무기사용문제에대해서도 이에대한 대통령의조치에대해서는 충분히이해하며 이를 지지할생각이라고 말하기도했다.

청문회를 방청한 사람들의 공통된 인상도 슐츠가 軍출신인 前任 헤이그와는 달리 온화한 인상을 풍기지만 자기 위치에 철저하게 자기 가치기준에 충실한 사람같다는 것이었다.

어느 의미에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의 답변을 하다가는 결정적으로 자기생각이나 위치를침범하는 듯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서울이 만큼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 헤이그의 사임이유가 무어냐고 묻자, 헤이그에게 물어 보라고했고, 슐츠장관이 건설및 核개발분야에서 굵직의 벡텔회사 회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어느 의원이 핵확산금지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런 영향을 받는다면 국무장관 자격이없으니 딴사람을 앉게 하라는 식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아예 봉쇄 해버리는 스타일이었다.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는 글자 그대로 자기가 말을 일부에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기회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질문도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외교문제, 즉 中東, 對蘇, 중공문제등에 집중되었다.

2일간의 청문회에서 나온 슐츠의 답변을 종합한다면 기존 미국의 對外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수정과 보강은 다소 가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들어 중동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위주의 종래의 정책에서 적어도 공평히하는 수준으로까지 변화가 예상될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對蘇관계에있어서는 前任 헤이그와 같이 강경자세를 유지, 소련의 무력확장을 전제하기 위한 미국 戰力의 적절한 유지가 필요했다는 입장을고수할것같다. 즉 미국의 힘의 弱化가 상대적으로 소련의 침공을 自招했으며 비록 對外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미국의 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는 강조했다.

다만 답변의 마디 마디에서 대결과함께 협상에대한 自信도강조해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역점도 둘것 같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요즘 계속된 유혈사태와 이에따른 美 해병의 파병결정이 내려진직후이기때문인지 질문과 답변은 中東문제가 태반을 차지했다.

슐츠장관은 중동 특히 아랍제국은 석유문제뿐만아니라 소련과의 대결이라는 점에서도 미국의 利害가 크게 관련된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지역평화유지도 이들과의 유대로써 가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부분에서 주목할것은 슐츠장관이팔레스타인인의요구가해결되어야하며 앞으로 팔레스타인측이 자신의문제해결을위한 협상당사자가되어야한다고말한점이다.

이것은 종래 미국이 가지고 있던 팔레스타인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進一步한것으로 보아야할것같다.

여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을 비난하고나왔는데 전임 헤이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절대로 삼가한것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그는 이날 사우디에 거대한 건설현장을 가지고있는 벡텔회사의 회장이었다는점에서 벡텔과 앞으로의 관계, 특히 親아랍적 입장에 관해 親이스라엘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관해 자신의 전직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차라리 이자리에 앉지 않을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하면서 자신은 아랍제국과 이스라엘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자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같이 전체적으로 중동평화를 위해 사우디 이집트등 아랍제국의 역할을 강조한것이 전임자와는 달랐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중동평화가 이스라엘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가장친근한우방이며 이스라엘에대한미국의공약에는 논란의 여지가없다고 말하는등 이스라엘과 아랍에대한 均衡에 굉장히 신경을쓰는듯했다.

슐츠장관은 軍縮문제에 질문받자 솔직하게 『나는 몇주전까지 런던에있던 장사꾼이다. 좀더 공부해야겠다』고 겸손해하면서 레이건의 기존정책방향을 고수할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적한것같이 對蘇관계등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힘으로서의 대결이라는 대원칙을 강경하게 밀고나갈것임을분명히했고 이런점에서 그는 소련의 천연가스管건설등에대한 制裁조치에관해 레이건의입장을 이해하며 지지하겠다고 잘라말했다.

슐츠장관이 전임자와 또다른견해를 나타낸것이 있다면 對中共관계이다.

그는 중공과의 旣存관계를 큰 비중을두고 계속해나가겠지만 臺灣에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겠다는 레이건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이그사임의 주요동기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문제였다는 것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슐츠의 이같은 발언은 어떻게 보면 예측될만한 것이었지만 중공이 이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계산된 발언으로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슐츠장관은 물론 대만에 무기판매를 하면서 여하히 중공과의 기본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2일간의 청문회에서 통틀어 아시아문제란 극히 적은 비중이었다. 그는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고 특히 일본이 국방비를 좀더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함축성있게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美·중공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슐츠장관이 말하자 퍼시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문제는 행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게돼있는 79년의 의회결의안을 상기시켜 이에 대한 행정부의 이견이 없음을 대신 강조하기도 했다.

만장일치의 동의로 끝난 청문회를 통해 신임 슐츠장관이 보여준 톤은 1년반전 레이건행정부 출범시 세운 주요대외정책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않으리라는 것이며 다만 여기에 부분부분 保守와 均衡의 색채를 짙게 칠해나가리라는 것이다.

◇슐츠美국무장관(중앙)이 상원外交委인준청문회에 나가기앞서 상원지도자들을 만나고있다. 오른쪽이 다수당인 공화당원내총무 하워드·베이커. 왼쪽은 外交위원장 찰즈·퍼시의원. 【AP】

팀·플레이의 名手

슐츠의 面貌를 보면

財務관계 要職 두루거치고 벡텔社 會長도

헤이그의 퇴진에 놀란 西歐盟邦엔 安堵感

헤이그美국무장관이 사표를내던졌을때 레이건 대통령은 서슴없이 후임 국무장관에 조지·슐츠前財務장관(62)을 기용하기로 생각을 굳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레이건행정부의 팀웍을 회복하면서 西歐각국의 불안을 가라앉히는데 슐츠는 안성마춤의 인물이라는 것이 레이건대통령의판단이었던것같다.

슐츠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팀·플레이의 명수라고 평하고 있다.

슐츠는 닉슨-포드-키신저로 이어지는 공화당主流에 속한다. 레이건정권의 출범당시 국무장관 후보에 헤이그, 슐츠 두사람의 이름이 거론됐을 때 공화당내 보수파는 슐츠가 데탕트 선호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헤이그쪽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그장관의 사임으로 西歐각국은 미국의 對蘇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슐츠를 기용함으로써 이러한우려는 일단 무마된 셈이다.

슐츠는 전에 외교문제를직접 담당한 일이 없었다. 미국 東部의 명문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매사추세츠공과대학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획득, MIT와 시카고대학에서 22년간 노동문제전문 교수로 재직하다가 1969년 닉슨 前대통령에 의해 노동장관으로 발탁되어 정계에 첫발을 디뎠다. 이어 행정관리예산국 장관(70~72년), 재무장관(72~74년)등 요직을역임, 키신저국무장관과 함께 닉슨행정부의 말기를 지켰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대규모 다국적 엔지니어링회사인 벡텔社의 부사장을 거처 국무장관에 지명되기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다. 헤이그장관과 자주 말다툼을 벌인것으로 알려진 와인버거국방장관도 취임직전까지 벡텔社의 부사장으로 있었다.

80년 대통령선거때 레이건후보의 수석경제고문역을 맡아, 선거에 이긴후 슐츠가 가장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물망에 올랐으나 같은회사에서 국무·국방 장관을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견해 때문에 국무장관직을양보하고 레이건 대통령의개인적 경제고문역을 계속맡아왔었다.

슐츠는 직접적인 외교경험은 없으나 벡텔社의 회장으로 재직하는동안 국제감각을 익힌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벡텔社는 특히 도시공업화계획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깊다.

슐츠는 또재무장관으로 재직할때 소련을방문, 브레즈네프공산당서기장과 회담한 일이있고 슈미트西獨수상과도 친교가 있어 슐츠의별장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일도있다.

취미는 골프와 테니스. 36년간 함께살아온 헬렌여사와의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다. 1920년12월 뉴욕에서 출생했다.

한국일보詩壇

비비추꽃

鄭斗理

분도회관 마당
돌 틈새로 피어 난 비비추꽃
어디선가 본듯한 꽃이다
했더니
축담이 높다랗던
내 고향집 담벼락 아래
그늘처럼 숨어피던
뽑아내긴 아깝고
두고 보기는 그렇던 꽃
흐르는 바람과
쪽빛나는 하늘이면
그냥 족할 것이다 라던
잠깐, 나의 뜻도 그렇게 진짜인가
헤아리게 되는
잘못 터를 잡은
내 허욕을
말간 햇살 속에서
총총히 벗겨 내고만 싶다.

曺薰鉉 名人등 어제施賞

本社제정

한국일보社가 제정한 제13기 名人戰 시상식이 23일 하오2시 한국일보社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시상식에서 張在九사장은 작년에 이어 타이틀을 방어한 名人 曺薰鉉9단에게상패와 부상1백80만원을, 準名人 徐奉洙7단에게는 상패와 부상 40만원을 수여했다.

제14기 名人戰예선은 8월초부터 시작된다.

◇曺薰鉉名人(左)과 준우승한 徐奉洙7단이 제13기名人戰 시상식직후 포즈를 취해보이고있다.

"한국과 外交저해 안된다"

日閣議, 檢認교과서 問題결론

【東京23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23일 열린 閣議에서 최근 물의를 빚고있는 고교교과서 검정문제에 대해 거론, 『고교교과서 검정내용은 외부에 공표할수 없는것이며 이번 실시한 검정교과서 때문에 타국과의 友好관계가 저해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각의는 참의원의 기야(喜屋武眞榮 무소속)의원이낸 서면질의에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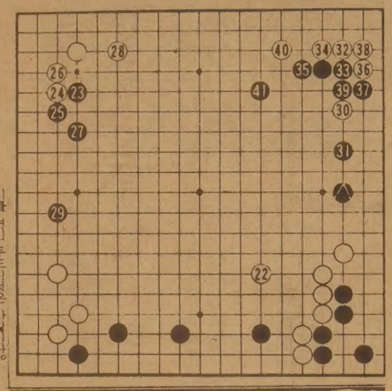
기야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대한 침략을 진출로 표현하는등 이[illegible] 여러나라에 의구심과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文部省이 마련한 이답변서는 교과서의 검정은 記述이 객관적이며 공평하고 교육적 배려가 요청되는 문제이므로 이때문에 타국과의 友好관계를 손상시키는일은 없을것이라고 답변, 검인정교과서로 인한 韓·日 日·中共 관계에 악영향이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야의원은 또 오키나와戰에 관한 기술을 일부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답변서는 검정결과에대해 공표를 할수없다고 말했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3譜 22~41
(각5시간·덤5집반)
白(名 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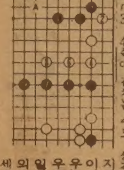


본보 黑41까지 비교적 빠른속도로 두어졌다. 도중에 피차간 6, 7분씩 고려한수는 있었지만 그밖은 거의노타임. 프로기사들이 『필연의과정』이라고 간단히 말해치우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물론 어느수이고 손을 따라 두어버린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둘다

名人의 實利 바둑

리를 연신 두드린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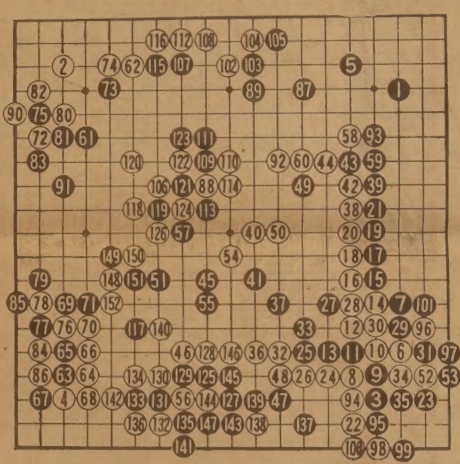
좌상귀 黑23이하 29의정석은 프로가 즐겨쓰는 형인데 특히 白이 실리가좋다는것이다. 그렇다고 黑이 불리하다는 결론은 내릴수가없다. 白30, 40쪽에 걸치는 수도 생각되지만 이경우는 우하일대의白세를 활용코자 한것이다. 그리고 黑31로



참고도의 黑1은 이하 9까지를 예상할수 있다. 그러나 白「A」등도 맛이 고약해서 도전자는 [illegible]이라고 단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白도 32에 파고들 밖에 없다. 그리고 白40까지. 여기서 보면 名人이 오히려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어(좌상귀쪽과 더불어) 이색적이다.

『黑41까지의 결과는 黑▲표의 위치가 좋은만큼 黑이 좀 불리할것같다』는 趙8단의 해설이다. 【一凡】



◇제37기 本因坊戰 도전7번기 제6국총보(1~152)
白 本因坊 趙治勳9단(4승 2패)
黑 도전자 小林光一9단 (2승 4패)
〈黑5집반공제, 제한시간 각9시간〉
소요시간 黑 8시간10분 白 8시간59분
白 不計勝

趙治勳 本因坊 타이틀방어

小林9단에 4승2패 거둬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趙治勳本因坊은 21·22양일간에 걸친 제37기本因坊戰도전7번기제6국에서도전자고바야시(小林光一)9단에게불계승을거두어 종합전적4승2패로 타이틀을방어했다.

일본 야마가따(山形)縣무라야마市에서 열린 이대국은 趙本因坊의 집백으로 진행됐는데 趙本因坊은 포석단계에서부터 우위를 보인끝에 중원에서 고바야시의 엄청난대마를잡았다. 도저히 만회할수 없다고 판단한 고바야시9단이 1백52수만에 돌을던졌다. 이때 시간은 하오8시36분으로 9시간의 제한시간중 本因坊이 1분, 도전자가 50분을 남기고 있었다.

趙名人의 이번 승리는 단순한 타이틀방어를 넘어 그의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꺾어『趙治勳시대』의 길을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名人, 本因坊, 十段, 鶴聖杯등 4개의 타이틀을 갖고있는 그는 碁聖戰에도 도전, 오는 3일 도전 제2국을 두게된다. 이날 대국이 끝나자 趙名人은『고국팬들의 성원으로 이긴것같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碁聖位도전기를 두겠다. 내년에는 최대의 타이틀인 棋聖位도 차지하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양 중·공고
임시총회 소집

동문제위!
휜뫼에 높고도 푸른뜻으로 한가람에 맑고도 깊은 맘으로…
어언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했고 우리들 이이민생활은 안정기반에 들어 섰읍니다.
이제 도약의 새시대를 열기위한 협동의 광장으로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양중·공고 동문은 한자리에 모입시다.

일 시: 1982년7월31일(토) 밤11시
장 소: 뉴서울식당 2층(529 Bloor St. W)
안 건: 1. 회장및 임원선출의 건
2. 가족동반 야유회 건
3. 기타 토의 사항
※재캐나다 거주 동문은 이번 기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오석 534-3648
김덕기 532-1054(제일식품)
김영상 459-3363
박인순 533-3545

한양중·공고
동문회장 김 오 석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춘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보십시요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537-3104

快速여객선 火災

1명死亡 警備艇출동 27명救助

【光州】23일상오10시께 전남莞島郡所安面붉川里앞 2㎞해상에서 莞島郡蘆花간 쾌속여객선 선플라워 (64톤)가 승객 24명 선원4명등 28명을 태우고 항해도중 엔진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 승객 金永東씨(53·농업·蘆花邑단위조합장)가 숨지고 나머지 27명은 긴급출동한 경비정에의해 모두 구조됐다.

이배는 이날상오8시께 蘆花邑梨市里에서 승객 24명을 태우고 莞島邑으로 가던중이었는데 승객金珍天씨(38)가 처음 불길을 발견, 승객과 선원들에게 알리는한편 莞島경찰서에 신고, 긴급경비정 2척과 所安지서와 蘆花지서에서 어선 1척등 모두 4척의선박이 긴급출동함으로써 승객과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날 이배는 선장金秉宿씨(35)가 光州로 교육을받으러가 을종2등항해사인 孫在洙씨(25)가 운항하던중 사고가 났다.

콘트롤데이타社 어제廢業式

지난19일부터 4일간 휴업에 들어갔던 반도체생산업체인 한국콘트롤데이타가 23일 상오9시께 구내식당에서 2백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업식을 가졌다.

"千4백억 賠償하라"

共榮토건, 李·張부부걸어 命令申請

日新제강서도 3백51억 배상청구

李哲熙·張玲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과 관련, 도산돼 법정관리를 받고있는 共榮토건이 23일 李·張부부를 상대로 모두 1천4백67억4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신청을 이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에 냈다.

共榮토건 보전대리인 金東煥변호사를 대리인으로하여 낸 배상명령신청서에서 共榮토건측은 『李·張부부가 거액의 자금대여를 미끼로 2배수어음을 발행해주면 초과분은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81년2월26일부터 82년4월9일까지 약속어음 3천88억5천만원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중 1천4백67억4천만원은 결제하지않아 결과적으로 共榮토건이 발행인으로서의 결제채무를 지게됐다』고 배상신청이유를 밝혔다.

이번 共榮토건이 신청한 배상액수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共榮토건의 사기피해액 1천1백62억원보다 더많은액수다.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고 형사소송에서 곧바로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한 제도인데 이번 배상명령신청액수는 배상명령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이후 최대의 액수이다.

한편 이사건 형사공판과정에서는 李·張부부의 사기죄성립을 둘러싸고 李·張부부측과 共榮토건측이 팽팽히 맞서있는데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내려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日新제강도 이날하오 李·張부부를 상대로 3백51억8천8백만원의 손해배상명령신청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했다.

전宜寧경찰서장에 징역10월宣告

【晋州】경남宜寧郡宮柳面경찰관 총기난동사건과관련, 구속기소됐던 전宜寧경찰서장 崔在潤피고인(57)에게 징역10월이, 전宮柳지서장 許昌淳피고인(44)과 전차석 金鎭宇피고인(35)에게 징역1년이 각각 선고됐다. 【鄕】

會社간부 둘 拘束

가공인물名儀 가계수표 百38장발행

【釜山】釜山지검수사과는23일 경남昌原공단내 베어링제조업체 대륙산업사대표 鄭源在씨(26·東萊區社稷3洞253의1)동사 총무부장 曹允赫씨(49·北區龜浦2洞1125)등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의 전대표인 李恩守씨(58·여·東萊區社稷3洞253의1)를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황으로 회사경영이 어렵게되자 지난해 8월22일 동회사 직원 김남석씨등 8명과 이신자등 가공인물 12명등 모두 20명이 대륙산업사의 사원으로 급여액이 25만원인것처럼 꾸며 北區掛法洞소재중소기업은행 沙上지점에 가계종합예금구좌를 개설한후 수표용지를 받아 지난6월말까지 2만원에서 10만원짜리가계수표 1백38장(액면1천1백23만9천8백원상당)을 발행, 물품대금지불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해온혐의이다.

검찰은 가계수표의 개설절차가 간단해 종업원 자신도 모른채 고용주나 간부에의해 쉽게 발행될수 있으며 30만원이하의 수표를 계속발행해 사용할수 있다는 헛점을 이용한것으로보고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을것으로 보고수사중이다. 【鄕】

原木 50억臺 빼내

釜山세관, 大明木材 전무拘束

【釜山】부산세관은 23일 50억원어치의 원목을 합판으로만들어 시중에 불법유출시킨 大明목재공업주식회사 (대표 정영호·45)전무 홍성덕씨(49)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정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세관에따르면 이회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6차례에걸쳐 말레이지아로부터 원목 2천2백76개를 수입, 회사안의 지정보세장치장에 반입한후 7월14일까지 3개월동안 세관의 허가없이 6천4백38개(시가50억원 상당)를 합판으로 만들어 시중에 팔았다는것.

한편 회사대표 정씨는 회사업무와 관련, 현재 해외에 머물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鄕】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日本뇌염 조심"

保社部, 전국에警報 방역강화

보사부는 23일 전국에 일본뇌염경보를 내리고 취약지와 돼지우리변등에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전국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보사부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계속됨에따라 光州지역에서 日本뇌염모기의 밀도가 50%이상을 상회하고 南光지역에서 채집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분리함에따라 이같이 긴급경보를 내리고 특히 3~15세 어린이는 뇌염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23일현재 일본뇌염모기 채집현황은 光州가 82%로 가장 밀도가 높고 北濟州66%, 全北完州37%, 忠南大德 7%, 釜山北區 8%, 경기高陽 4%등이다.

「臟器銀行」을 만들자

두 死刑囚 기증계기 眼球銀行도 적극活用바람직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장기를 제때에 적출해낼수 있다면 수많은 불치병환자들에게 새생명을 줄수있다. 【기증받은 안구로 눈수술을 받은 환자=성모병원에서】

不意사고로 死亡했을경우 銀行에 예치토록 권장했으면

우리나라에도 장기(臟器)은행이 생길때가 되었다. 또 이름뿐인 안구(眼球)은행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두 사형수의 장기기증사례는 이같은 필요성을 절감케해주었다. 물론 그같은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던것은 아니나 우리나라는 장기은행의 설립을 뒷받침할 법적뒷받침이 없는데다가 「사체손괴」를 꺼리는 사회통념이 뿌리깊어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수가 없었다. 의학계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장병환자의 수가3천여명인데 장기은행이 서면 이들을 모두완치시킬수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처럼 관계법률을 만들어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로 숨질경우 콩팥을 적출, 은행에 예치케하도록 제도화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通念 바꾸고 獻納운동 펴야

장기은행 장기은행을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이식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장기를적출, 이식수술에성공한예는 지난79년1월 漢陽大에 처음으로 최근에는웬만한 병원에서는 모두 성공할수 있을정도다.

그러나 신장의 공급이 사실상 막혀있다. 특히 장기(臟器)의 경우 기능이 끊어지기전에 적출(摘出)해 이식할경우 높은성공률이 보장되고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다 사회통념에 얽매어 공급의 길이 막혀있는실정이다.

이때문에 일부의사들은 기왕 회생의가능성이 없다고판정이될경우 심장과호흡이 있을지라도 뇌의기능이 마비됐을때에는 「죽음」으로 단정, 장기를 딴사람에게 이식할수있도록 「죽음의정의」를 뇌사설(腦死說)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漢陽大 신장내과과장 朴漢喆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신부전증(腎不全症)을앓고 있는 환자만도 3천여명이나 되고 년간1천여만원이나드는 값비싼 인공신장기로 연명하고있는 환자만도 3백여명이나된다.

이들 환자들의 근본적인치료방법은 신장이식수술외에 길이없는데 신장공급이 안돼 그대로 숨져가는사람이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장이식수술로 생명을 건진사람은 대부분이 친족의 신장을 떼어내 이식한 정도인데 친족이 없는 환자들은 죽은사람의 신장을 이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때문에 건강했던 사람이 불의의사고로죽었을때 사자(死者)로부터 즉시 장기를 적출해내 이식하는 방법이있긴하지만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있어 실현을보지못하고있다.

朴박사에의하면 영국, 서독,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번호판에 『내가 죽으면 장기의 일부를 적제해도좋다』는 표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죽었을 때 즉시 장기를 이식할수 있는 제도적 길이 마련돼 있다.

한편 미국에서도 지난68년 획일적해부용여법이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데▲18세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후(死後) 그신체의 일부나 전부를 이식, 연구, 또는 장기은행에 기증할 수 있고▲기증자가 생존중에 증여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이 이를 대행할수 있으며▲기증자는 증여의 뜻을 언제나 취소할수 있어 기증자의 법적 지위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뇌사설을 인정, 장기이식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법적, 원리적 문제가 뒤따른다.

안구은행 안구은행(EYE BANK)은 67년4월 明洞성모병원에 처음생긴후 현재까지 경희의료원과 수도통합병원등세곳에설치돼있다. 안구은행은 각막이식에 필요한 인체의안구각막 조직을 미리적출,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각막을 비롯, 초자체(硝子體) 공막(鞏膜)등을 공급해주는 제도로 헌안에 의해서만 이제도가 성공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눈의기증자를 확보하는 헌안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다.

明洞성모병원 중앙안구은행의 경우 67년개설이래 8백여개의 안구를 기증받았는데 3백여명이 이눈으로 각막 이식수술을받고 시력을회복했으며 현재안구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사람은 7백50명에 불과하다.

현재우리나라에는약12만~15만명의맹인이있고 이중각막이식수술로 시력을 회복할수있는 사람이 10%인 1만2천~1만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기증은 이에 미치지못해 수술을 못받고 암흑속에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것.

李相旭 明洞성모병원 안과과장은 선진외국처럼 안은행이 적극적으로활용되려면 국민전체가 신체의일부를 사후에 기증하는데 적극호응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朴珍烈기자】

공막移植수술도 두死刑囚기증

속보=사형수 2명이 기증한 공막과 안구로 5명에게 각각 이식수술을해준 明洞성모병원은 23일 하오 남은 공막(鞏膜) 1개를 이용, 金모군(9)에게 공막이식수술을 했다.

또 나머지 3개의안구는 江南區성모병원으로보내 宋모군(19)등 3명에게 각막이식수술을 해주었다.

사랑으로 復活한 「金堂의 사탄」

콩팥 기증하고 刑집행된 朴鐵雄

基督教에 귀의 회개

말썽꾸리기 囚人과생활…傳道헌신

◇朴鐵雄

22일 낮12시 사형집행직후 안구와 신장이 사회에 기증돼 뭇생명을살린 사형수는 세인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金堂사건의 주범 朴鐵雄(41)이었다.

지금도 몸서리처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비인간의 표본처럼 보였던 그가 어떻게 이번에는 인류애의 화신처럼 생을정리 했을까.

朴은 지난79년6월20일 동생 千雄(34·무기수) 내연의처 金孝順(29·복역수)과 공모, 서울鍾路區1가 洞골동품상 金堂주인 鄭海爽씨부부와 운전사 李東煥씨등 3명을 『1억원짜리 이조백자를 팔겠다』며 서울麻浦區城山洞 집으로 유인, 살해암장한뒤 鄭씨가 가지고있던 5백만원을 빼앗았다가 그해 9월28일 검거됐었다.

당시 사건발생후 鄭씨의 어린 4남매의 애처로운 모습이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살아만 있기를』 바랐으나 朴이 내연의처 金의 친정아버지의제보로 검거되고 무참히 살해암장된 鄭씨등의 시체가 朴의정원에서 발굴되자 온국민이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치를떨던 때가 바로 엊그제다.

그후 朴은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지난80년 10월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사형집행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인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져가는 기간동안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생하고 있었던 것.

朴은 형이 확정된후 재소기간중 기독교에 귀의, 독실한 신앙생활로 회개의 나날을 보내왔다.

朴은 같은감방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도 헌신적인 전도생활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고 새로운 인간이 되기위해 노력해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구치소측은 행형성적이 좋지않은 말썽꾸러기재소자를 번갈아가며 朴과 한방을 시켰는데 이때마다 朴이 성경을 나누어 읽으며 자신의 과거얘기를 해주고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들려줘 교도관이상으로 순화에 성공했었다는것.

朴은 특히 지난해 4월께 누구의 권유도 없이 자신의 형이 집행되면 안구와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는것.

이에따라 구치소측은 사형집행전날인 21일 서울江南성모병원에 朴의 이름은 밝히지않은채 수술준비를 부탁해놨었다.

서울구치소부소장, 입회검사, 30여명의 사법연수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으로 집행된 형장에서 朴은 집행직전 목사가 성경을 손에펼쳐들고 기도를 드리는동안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올렸으며 이윽고 죽음의 공포를 이미 초극한듯 아무런 요구사항이나 말이없이 형장에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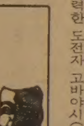
永生을 찾아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世俗의 차원을 넘어선것 같았다는게 입회자들의 공통된 느낌이었다고. 【崔奎植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強者」

本因坊 타이틀방어한 趙治勳9단

難敵물리치고 바둑 統一大道 열어



趙治勳 9단(25·사진)은 22일 本因坊타이틀을 방어함으로써 4각의 세계최강자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흑백돌이 무궁무진하게 펼치는 바둑판은 어떻게보면 권투링보다 더 살벌한 4각의 정글이다. 1시간이면 끝나는 권투와 달리 바둑의 타이틀전은 보통 이틀이나 계속되는 혈투다. 피와 땀은 흘리지않으나 5~6갑의 담배연기가 그 고투를 대변한다.

팬들의 환호도, 홈·어드벤티지의 추운도, 반칙도없는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비정한 승부의 세계인 것이다. 조치훈9단의 이번승리의 진짜의의는 그의 天敵처럼 알려진 강력한 도전자 고바야시(小林光一)9단을 물리치고 統一天下의 길을 터놓았다는데 있다. 고바야시는 趙9단을 꺾을수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꼽혀왔다.

일본바둑계가 한국인 趙治勳이 누리고 있는 「4각의 왕자」자리를 빼앗기 위해 고바야시를 부추기며 사기를 돋운 흔적도 있지만 사실 趙9단은 고바야시에게는 약한 징크스가 있었다. 6승15패란 그동안의 전적이 이를 말해준다.

이번 도전기에서도 1국을 패해 「고바야시에게 약하다」는 징크스가 입증되는듯 했다. 그러나 비정한 「4각의 정글」은 징크스마저 용납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천재성과 끈기로 「세계최강의 고수」자리를 위협했던 커다란 산을 뛰어넘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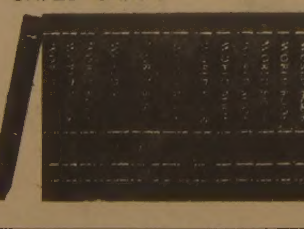
趙治勳의 바둑이 천재성과 성실의 결합이란 사실은 잘알려져있다. 6세때 林海峰6단(당시)에게 5점을 놓고 불계승을 거둔 천재성과 함께 『나는 제한시간을남기고도 지는 바둑을 이해할수 없다』며 최후의 1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끈기를 지니고 있다.

10세입단의 뜻이 좌절되자 자살을생각했지만 『죽을 결심이라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는 어른스런 마음에서 마음을 또단하게 가다듬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 8단까지 최연소승단기록을세운것도 이같은 굳센 의지가 있었기때문이다.

趙9단이 자기시대를 열기 시작한것은 80년11월 名人位를 차지했을때다. 그는 이전에도 조그마한 타이틀을 여러번 획득했으나 곧잃고말았었다. 그러나 名人位에 오른뒤부터는 棋士로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듬해 名人타이틀을 방어했을 뿐아니라 本因坊타이틀까지 쟁취했고 이번에 本因坊을 방어까지해 당분간 적수가없음을 과시했다. 앳된 25세 청년에게서 우리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실력이 곧 생명이며 그생명은 끊임없는 수련과 각고가 있어야만 살아남는다는 간단하나 위대한 진리를 본다. 【梁平기자】

MLS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익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와 박혜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姜萬守 대표팀 復歸싸고
배구協 內紛 "위험水位"

"負傷者많아 戰力보강 시급"
일부理事、會長무성의 반발

다가온 세계大會·亞洲게임… 조속히 결말지어야

지난5월 日本NHK컵국제대회에서 남자대표가 세계2위의 쿠바·日本등을 격파, 세계정상수준에 바짝다가 섰는가 싶었던 한국 남자배구가 지난12일 열린 국제초청배구대회서 복병 美國에 연패, 팬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남자배구 전력이 파행적인 취약점을 노출한것은 姜과 柳重卓 李鍾欽등주전3명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있다。

배구협회관계자들은 전력보강의 하나로 전대표였던 姜萬守의 대표팀복귀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는데 이문제를 놓고 趙錫來회장과 일부이사들이 팽팽하게맞서 위험수위를 맞고있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15일 金明洙부회장과 延炳海、張慶煥、任亨彬、朴鎭觀、朴勝洙、曺英浩이사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열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근 귀국한 전국가대표 姜萬守를 트레이너겸 선수로 보강키로 한후 趙회장과 협의하여 확정짓기로했다。

또한 이사들은 이틀날인 16일 국제친선대회가 열리는 문화체육관에 趙회장이 나온다는것을알고 이자리에서 姜萬守문제를 타결짓기로 했으며 이때 이사회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사퇴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

그러나 趙회장은 16일 사업상 출국, 얼마전에야 귀국했는데 시급을 요하는 姜萬守의 대표팀 합류문제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 있는것이다。

또 지난 이사회서 총사퇴론이 강력하게 대두된것은 단순히 姜萬守문제 뿐만아니라 趙회장에 대한 협회 이사들의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배구인들은 풀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지난80년10월 협회를맡은 趙회장이 협회운영에 무성의했다고 지적하며 이사회에 대부분 불참하는바람에 차후에 따로결재를 받아야하는등 협회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것。

지난5월 NHK컵 배구대회에 출전한 남자선수 숫자를 결정할때도 이사회는 지난해11월 趙회장이『각종 국제대회 출전시는12명 엔트리를 무시하고 보다많은 숫자의 선수를 보내 국제대회분위기를 익히게 하겠다』고 공언, 3명을 추가시켰는데 결재과정에서 이를 거부, 한차례 논란이 오고간후 확정되기도했다。

또한 최근에 열린 이사회에 朴仁基재무, 趙弘圭섭외는 아예모습을 나타내지않고있으며 매주 금요일 열리는 이사회를 목요일로 바꾸면 참가할수있다던 李康平이사도 불참, 이사들 사이에도 손발이 맞지않고 있다。

한편 姜萬守의 대표팀복귀문제에 대해 趙회장은 완벽한 행정 조치를 취한뒤에 복귀여부를 결정짓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姜萬守경우 아랍에미레이트에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진출, 『대표선수로 복귀시켰다가 나중에 아마자격이 없다는 판정이 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이사들은 『姜과 함께 아랍에서뛴 다른나라 대표선수와 이탈리아등지에서 계약금을 받고뛴선수들 역시 이번 세계선수권에 대비, 자기나라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으며 姜의 아마자격여부를 국제기구에 문의할 경우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결과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대표선수 강화훈련관계자들은『姜의 복귀는 대회당일의 전력보강보다 주장 姜과 柳가 빠져 구심점을 잃은 대표팀에 姜萬守가 들어가 얻게되는 팀워크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더큰 문제점은 태릉에서 훈련중인 대표선수들 역시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이다。이들은 자신들의 전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趙회장 취임후 지난 6월10일 처음으로 선수촌을 방문했을때도 건의할 시간을주지 않고 총총히 사라진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남녀세계 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있는 배구협회가 하루빨리 정상화하지않는한 한국배구는 또다시 후퇴할것이라는 우려가 팽배되고있다。

韓·美·브라질 3國여자배구

代表팀戰力 평가계기

28일부터

美洲여자배구강호가 참가하는 국제친선 여자배구대회가 오는28일부터 31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美國·브라질·한국여자대표및 주니어팀등 4개팀이 더블리그로 펼칠 이번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9월·페루)에 참가하는 여자대표팀의전력평가전을함께 겸하고있어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월드컵여자대회에서 中共·日本·蘇聯에 이어 4위를 차지한 美國의 장신 플로라·하이먼(195㎝)은 세계3대거포중의 하나로 남자선수에 못지않는 오픈강타가 유명하며 78년 세계선수권서 처음 선을 보인 173㎝의 리타·클로켓의 파워도 위력적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계인 세터 데비·그린은 162㎝의 단신이나 토스가좋고 재치가뛰어나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월드컵서 8위를 차지, 5위의 한국에 비해 다소 전력이 떨어질것같이 보이나 이번 세계선수권이 인접국에서 열리는것을 계기로 상위입상을 위해 전력을 강화,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다。

◇대회일정

▲28일=미국-한국주니어(5시)한국-브라질(7시) ▲29일=한국주니어-브라질(5시)미국-한국(7시·이상1차전) ▲30일=미국-한국주니어(5시)한국-브라질(7시) ▲31일=브라질-한국주니어(3시)한국-미국(5시·이상 장충체)

한국洋弓 라이벌은 北韓

5월 北京大會때 女개인·團體 우승實力

亞·大洋洲대회참가 中共·홍콩팀감독 밝혀

【日本오비히로=李鍾南특파원】아시아양궁에서 한국의 적은 中共이나 日本이 아니라 숨어있는 北韓이다。

22일 제1회 아시아대양주양궁선수권대회폐회식에서만난 홍콩팀 카이약식(丘錫樹)감독과 中共의 徐開才감독에 의하면 北韓은 남녀모두 아시아정상급 실력을 갖추고있음이 밝혀졌다。

丘·徐감독에 의하면 지난 5월말부터 6월2일까지 中共 北京에서 中共 美國 北韓 필란드 西獨 뉴질랜드 印度 싱가포르등 1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양궁 국제친선대회가 열렸었다。

이대회에서 北韓은 여자개인종합에서 吳光順이 2천5백43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吳는 모스크바 올림픽때 개인4위를 차지한 세계적선수다。

또 남자개인종합에서 金繼英이 2천4백89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여자단체는 우승, 남자단체는3위를 차지했다。

궁도에서 세계적 강국인 美國 핀란드 中共을 제치고 北韓팀이 상위권을 점령한것이다。

여자개인종합 吳光順의 2천5백43점은 한국의 金珍浩가 이번에세운 2천5백80점보다는 37점이 뒤지고 남자 金繼英의 2천4백89점은 한국의 金永雲기록보다 91점이 뒤떨어지지만 한국이 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 높은기록이다。

또 기록이란 대회장소등 환경에따라 약간의 기복이있어 절대적인 비교평가가 될수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에 中共을 이겼다고해서 방심하면 아시아정상을 지키기 어렵다。北韓도 남녀모두 中共을 앞질렀으므로 오는11월 印度에서 열리는 제9회아시아경기대회 南北대결은 치열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78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자는 한국과 北韓이 모두 상위권에서 처졌다。여자는 단체에서 한국이 3천6백7점으로 銀메달,北韓이 3천4백48점으로 銅메달을획득했고 개인종합은 金珍浩가 金, 北韓의 김형민이 銅메달을 따냈었다。

世界사이클서 첫「銅」

伊주니어대회 처녀出戰 趙建行 기염

◇趙建行

한국의 趙建行(사진·충남德山高3년)은 22일 이탈리아 페루지아에서 벌어진 82년 세계주니어 사이클선수권대회 3만m포인트경기에서 19점을 얻어 銅메달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사이클이 세계규모대회에서 등메달을획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趙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해 이같은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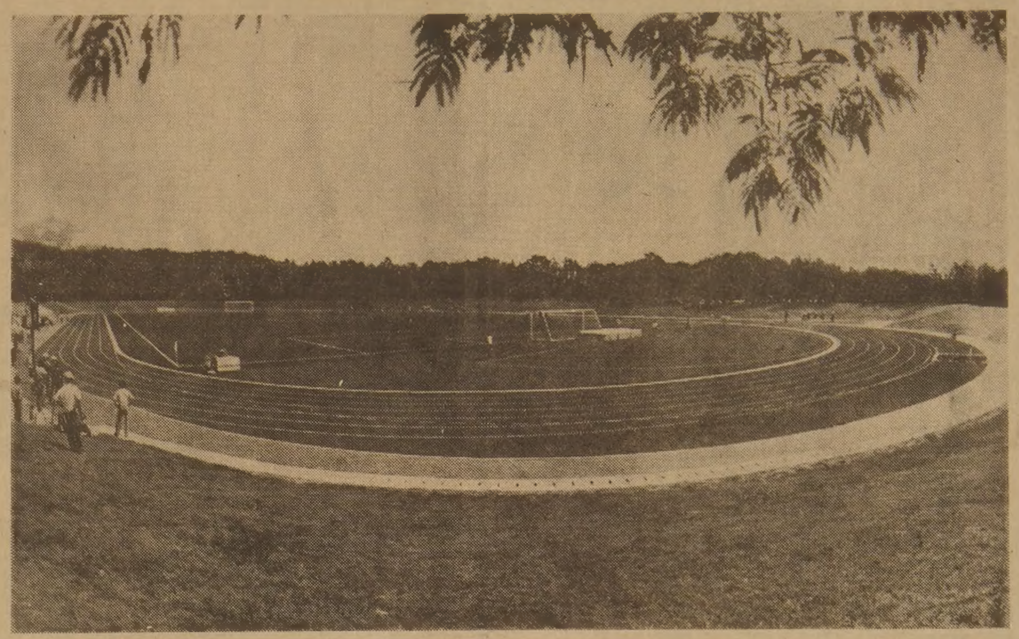
3만m포인트경기는 올해 아시아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처음으로 채택됐다。

趙는 이번대회 출발전 세계주니어대회 선발전과 평가전의 포인트경기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37회 전국선수권대회 속도경기서도 1위를 차지한 유망주다。

LA올림픽 入場券 우편豫約制로 판매

【로스앤젤레스22日AP=聯合】오는48년의 로스앤젤레스올림픽경기관람권은 암표방지를 위해 우편예약제도로판매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가 22일발표했다。

조직위는 은행및 주요판매조직을 선정, 오는83년 봄부터 일반에 관람권을 판매할 예정인데 우편으로 관람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우선예약표를 발송하며 해당경기직전 이를 입장권과 교환, 암표를 방지하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습드러낸「9億원 운동장」

◇태릉선수촌에 마련된 국내최초의 인조잔디구장。축구뿐만아니라 럭비풋볼, 하키등의 경기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泰陵선수村에 人造잔디球場 첫선

陸上트랙 化學材포장도 준공

국내 최초의 인조잔디구장과 육상트랙화학재 포장시설 준공식이 23일오전10시 李源京체육부장관, 鄭周永대한체육회장, 曺相鎬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등 많은 체육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泰陵선수촌서 베풀어졌다。

잔디구장 면적은 국제규격인 1백10m×75m로 9억1천7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또한 육상트랙 화학재 포장공사에는 7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준공식에 앞서 林永燁코오롱건설대표등 시설유공자 5명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준공식이 끝난후 육상시범경기와 국가대표축구팀과 청소년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있었다。

大會新3개

實業團사격대회

【釜山】제9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 최종일 공기권총여자부 개인경기에서 국가대표 金良子(企銀)는 376점으로 1위, 夫信姬(국민은)는 374점으로 2위, 南貞仁(국민은)은 371점으로 3위를 차지, 모두 대회신기록(종전370점)을 수립했다。

또 남자부에서는 吳興祚(제일은)가 56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金秋植(국민은)이 564점으로 2위, 安광춘(城南시청)이 562점으로 3위를 마크했다。【聯】

전국高校테니스 制覇

남고부 盧甲澤
여고부 崔殷姬

盧甲澤(마산고)과 崔殷姬(주문진여고)가 제26회전국남여고교초청테니스대회의 패권을 차지했다。

23일 奬忠코트에서열린 대회최종일 남고부결승서 아시아주니어선수권자인 盧甲澤은 한국주니어선수권자인 鄭相元(강릉고)과 두차례의 타이브레이크 끝에 2-1로 역전승, 이 대회를 2연패했으며 지난종별대회서 우승한 여고부의 崔殷姬도 한국주니어선수권자인 朴美淑(경북여고)과 첫대결을벌인끝에 역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최종일전적

▲남고부결승

盧甲澤 2 (3-6 7-6 7-6) 1 鄭相元
(마산고) (강릉고)

▲여고부결승

崔殷姬 2 (3-6 6-1 6-2) 1 朴美淑
(주문진여고) (경북여고)

三美、후기리그 첫勝利

해태꺾고 8連敗늪 탈출

프로야구

三美슈퍼스타즈가 연패의 악몽에서 깨어났다。三美슈퍼스타즈는 22일 仁川구장에서 홈팬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으면서 8회말 해태타이거즈 에이스 金勇男의 난조로 얻은 四死球 4개와 敵失、희생타를 착실히 득점에 연결、결승 4점을 얻어 7-4로 승리했다。

전기종반3패、후기 개막이래 8패로 11연패에 첫 승리를 거둔 三美선수들은 열광하는 仁川팬들의 환호에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해태의 金一權은 이날도 1개의 도루를 성공、통산 36개로 단독선두를 지켰다。

◇22일전적

◆인천

해태	000	002	002	4
삼미	000	300	040	7

◆대전

롯데	001	000	001	2
OB	120	020	00×	5

▲홈런=金貞洙(9회·롯데)

◆서울

삼성	000	000	000	0
MBC	100	300	10×	5

구독신청 배달사고 ☎ …-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 ⑥

『그래、그럴줄알았어요。보석이란건 절대로 닳거나 유행이 바뀌는게 아니니까 이대로 두었다가 그때그때의 의상이나 참석하는 파티의 분위기、상승하는 신분에 따라 하나씩 세팅하는게 좋아요。또 그게 보석을 길들이는 요령이기도하고。내눈엔 보석만 보여서 그런지 여자들 보석 지닌것만보면 벼락부잔지 근지있는 부잔지 단박 알겠거던』

고여사의 눈이 수지의 아래위를 싸한번 훑었다。싸리빗자루로 쓰는것처럼 따갑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우선 다이어먼드로 한세트하고 에머럴드로 한세트하는게 좋겠어』

다이어먼드로부터 격리된 보석군속에서 진초록빛 풀을 골라내서 수지의 옷깃에 슬쩍대보며 말했다。

『너무 약소하지 않겠어요?』

기욱이 난처한듯이 수지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가만히 계셔요』

수지는 까닭없이 위축돼서 기욱의 옷소매를 당기며 고여사의 처분만 기다리라는 시늉을 했다。

『빛깔이 기가 막힌 에머럴드야。사람의 넋까지 빨아들일 깊이 모를 심연같아、안그래요? 이런게 어울린다는건 미모만 갖고는 절대로 안되지。지성미에다 신비한 분위기까지 갖춰야 하는데。미스터 남의 피앙세、첫인상만해도 그정도까진 안되는것 같았는데 볼수록 안그래。난 이걸로 한세트 결정 봤어』

기욱과 수지가 다만 얼떨떨해하는사이에 고여사는 멀찌감치 격리해 놓은 다이어먼드 쪽으로 달려들었다。그중 제일 큰걸 확대경으로 면밀히 살펴보고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원더풀、훌륭해、깨끗해를 연발했다。

고여사가 하도 허풍을 떠니까 기욱이 혼자말처럼 한마디했다。

『내가보기엔 유리구슬하고 별로 다르지않은걸 여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지?』

『그렇게 우습게보면 안돼요。절대로 가짜를 만들수 없는게 보석이니까。그야 외모야 얼마든지 비슷하게 합성할수는있지。그렇지만 어떤 물질도 감히 비교도 할수없는 경도(硬度)까지 합성이 돼야말이지。그경도없이 빛의 굴절률만 흉내내봤자 곱빈 배치미인과 다를바없지。』

『아무리 오래지녀봤자 사람이 한세상지닐건데 그렇게 단단해서 뭘하니까。애꿎은 딴 보석들한테 상처나 입히기 십상이니 위험천만이라는것밖에…』

『모르는 소리 말아요。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하다는건 이세상의 어떤 타협에 의해서도 상처나마모를입지 않는다는 뜻이거던。그래서 다이어먼드에만은 [illegible]라는게 없지。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셈、얼마나 신비해』

『듣고보니 여자들이 좋아할만도 하군요』

기욱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감탄을 했다。

고여사가 다이어먼드와 에머럴드만 내놓고 나머지 보석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수지는 얼핏본 찬란한 오팔이 탐났지만 참을수밖에 없었다。

『차나 한잔하고 가요。혜경이가 마내놓서한테 놀리겠네』

그러면서 코피보트에다 스위치를 넣고 고개를 한번 저으니 명주실같이 부드러운 머리가 살짝 위로 넘어갔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일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자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아이구 골치야…〃 〃거 재미 있어진다…〃

쭉욱 뻗은 길은 한 곳도 없고—

뉴스 낱말 풀이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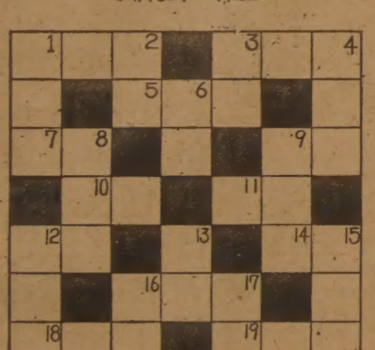
<힌 트>

■가로
1. 무승부로 세계타이틀 방어한 복서
3.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5. 바둑계 천하 재통일
7.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음
9. 사람의 눈을 흐리는 술법
10. 심장의 주기적인 운동
11. 혼인한 두 집의 부모끼리 부르는 말
12. 술 못 먹는 사람이 축내는 것
14. 넥타이 이름에도 붙는 곤충
16. 암거래 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몰려 있는 곳
18. 근로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19. 한 많은 눈물 고개

■세로
1. 프로야구 미스터 올스타
2. 좋은 컨디션
3. 구체적으로 나타냄
4. 몸을 보호하기 위한 護技
6. 장기나 바둑 관전자는 뺨을 맞아 가며…
8. 조끼로 마시는 술
9. 성모 마리아의 그림
12. 하르빈驛에서 육혈포를 꺼내…
13. 6골을 터뜨린 사나이
15.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
16. 큰 절에 속하는 작은 절
17. 가시가 있다는 화려한 꽃

<15회 정답은 12면에>

<제15회 퀴즈>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⑪

● 그 조깅의 칼로리

재임즈·터버라는 우수한 만화가의 작품은 남과 여 양성의 전쟁을 그린 거다. 끝내 여성군이 승리를 거둔다. 패배한 남성이 부러진 깃발을 들고 여성군 앞에 무릎을 꿇는다.

섹스는 스포츠다. 섹스는 뛰어난 운동이다 (Sex is an excellent exercise)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사실 운동치고는 최고라는 거다. 머리·목·팔·몸뚱이·다리·허벅지, 그리고 서로의 중심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원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곳, 작은 곳, 호르몬작용까지 스피디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남성이 이기느냐, 여성이 이기느냐는 창세기 3장12절에 결정내려져 있다.

네가 발가벗었다는 것을 누가 일러주더냐에 대한 아담의 답이다. 아담 왈, 당신이 내 곁에 있게 만들어 준 저 여인이 선악과를 따서 내게도 먹였읍니다—라고. 그래서 이 장면이 늘 美·英 조크집에는 안빠진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먼저 지으셨느냐의 답이 만일 여성을 먼저 지으셨으면 하도 주문이 많아 남성을 지으시는데 애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면가. 또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남성을 만드신후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여성을 지으셨는데, 그 직후부터 하나님도 남성도 쉴수 없게 된거다 (·and since then neither God nor man has rested.) 등의 조크가 그거다.

역사가 시작된 후 남성이 여성의 꽁무니를 좇아 도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비가 꽃을 찾는다라는 생각은 동서고금이 똑같다. 여성은 피하는 척하다 끝내 못이기는 척하고 잡히는 시늉을 해왔다. 영웅호걸이 호색이라면, 못나고 잘나고 간에 여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참으로 유구한 시간, 여성쪽에서는 여성도 호색이라는 쪽에 깃발을 안든 거다. 사실 여성들까지 우리도 호색이라고 공인하고 백주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도저히 남성이 당해낼 길이 없다.

런던발 최근의 로이터통신이 전하는 것을 보면, 같은 직장에서 여성쪽이 남성의 어깨, 몸부딪치기, 몸을 만지고 붙잡기등을 능동적으로 해대는 수가 43%나 된다는 보도다. 아직 50%까지는 안되어 안심할수 있지만, 백주에 말을 타고 돌진해 남성쪽을 산산조각내고만 재임즈·터버의 만화는 만화가 아니라 현실을 돌잡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달아나는 척이라도 해주면 남성의 숨통이 아직은 벌름댈수 있는데, 저쪽에서 덤비는 꼴이 노골화될 때는 남성은 주춤, 백기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섹스에 있어서는 도저히 여성의 적수가 못된다는 것을 잘 알고들 인기 때문이다.

외국을 다녀오는 이들이 늙은 자기 마누라에게 졸볼이 모험을 돌고 들어와 선사하는 이가 늘었다고 한다. 배터리가 한물간 주눅어 든 자기의 남성만 가지고는 마누라의 바가지 함성을 도저히 봉쇄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신사협정인 거다.

예전에는 멘스를 수줍게 여기던 어린 여성도 남자 형제들과 딱 버티고 싸울 때는 멘스도 못하는 병신같은 것들이 까분다고 역습하는 무기로 사용되는 사회다. 지난 수십년간 여성잡지들은 키스에서 오르가슴에까지, 그리고 그 뒤처리까지 침실의 매너를 물 샐 틈 없이 교시해 왔다. 쾌감 날 때는 참지 말고 더 발악하고 기절까지 하는게 최고라고. 수십년간 활자화되는 동안 여성의 거의 다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익은 거다.

물론 구미에서는 활자 아닌 시각면에서도 교시해 왔다. 매춘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가정마다 매춘 스타일에 보급된 거다.

남편 밑에서 기절한 척해 보이는 꼴은 매춘부의 기교였기 때문이다. 여성 지성지의 좌담에서도 20대 여성들이 섹스 자유화등의 당당한 자기 여론을 펴고 있다. 제가 좋아서 하는데 무슨 책임이고 나발이냐는 거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서방질하는 자유라고 하면 분노하면서 섹스의 자유화라고 하면 화사한 미소로 대한다. 호색이라고 하면 찌푸리는데 멋장이라고 하면 좋아한다. 그 남자와 한탕했냐고 하면 화를 내는데 연애했냐고 하면 웃는다.

음탕하다고 하면 절교 선언을 하면서 무드가 있는 여자라고 하면 저 빼 날뛴다.

설은 섹스는 의미론 여전이다. 남성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우는 꼴을 보이는 여성 앞에서 동정은 금물이다.

여성은 다른 어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쭉어 절려들 또 하나의 함정이 될 염려가 있다.

과열 섹스가 스포츠라면 남성과 여성 어느 쪽이 승자겠느냐는 판정은 만화로만 내릴 문제는 아니다. 돌돌여의 배터리를 갈아 끼고 있는 제경기를 지난 중년의 아낙네들을 연상하면 남성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숙연해지지 않을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남성들은 여성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따라오는 척이라도 계속해야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은 뒤쫓기고 있는 척이라도 계속해 주어야만 남성의 체면이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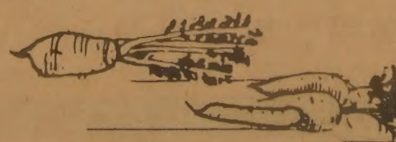
그렇지 않고 50%:50%로 남성에게 도전해 오게 되면 남성의 머릿속에는 늘 어브에 대한 숭배개념이 흙이 되고 만다. 알것을 다 알고 난 후의 섹스는 뛰어난 운동이라고 깨달을 필요는 없다. 운동이라면 꼼짝도 하기 싫은 남녀를 위해 할 서간의 조깅보다도 효과 있고,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게 섹스라고 현대의 의학은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1부 끝>

화소식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민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품목은 직접 PICK UP하시거나, 주문할 수 있읍니다. (단,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을때 품목에따라 5%의 차이가 있겠음을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해 드립니다. (배달은 오후1시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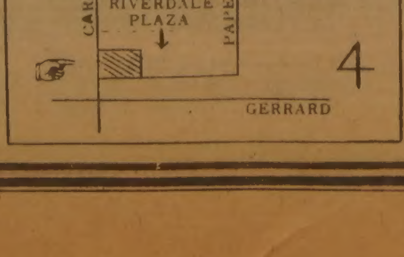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지하철 사고이후 운전사와 승객대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지하철공사하는 곳을 피해서 보광동 갑시다.」

「예! 알겠읍니다.」

—퍼치마운트 (土月文友會·용산구보

<달라진 격언>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前 美국무장관 헤이그—

미국로스엔젤레스에서 CLEE

<미니 스커트와 미디 스커트>

미니스커트와 미디스커트를 입은 두 아가씨가 만났다.

미니스커트…미니는 참 시원해요.

미디스커트…어머, 미디가 더 세련하죠.

미니스커트…미니가 더 시원하게 되어 있는데두요?

미디스커트…그건 그렇지 않아요. 미니까지 입고 노팬티일순 없잖아요.

★<여자가 존재하는 한>

우리에겐 불황이 없다.

—생리대장사—

은지 (참실 양지부동산)

<피서 시리즈①>

이보다 더 좋은 피서가 어디 있어?

김용화(서울·동대문구 전농동 127 현대기획)

<공판정에 나온 큰손의 장여인>

손만 큰줄 알았더니 혀도 크더라.

—원철연 (배남 잘 받았소)

<피! 피! 당신의 피를 부르는 소리>

『헌혈합시다』

프二品 (納涼시리즈① 土月文友會)

<중국집 아들>

항상 빵점만 받아오던 중국집 아들이 어느날 국어시험에서 95점을 받아왔다.

화가난 엄마가 『도대체 무엇이 틀렸니?』하고 묻자, 아들이 하는 말은 『보통의 반대말을 곱배기라 썼더니…。』

—서용만 (경북칠곡군북삼면오평1동 오평국민교앞)

<영화선전용 페인트 색깔별 판매실적(%) 조사 보고>

피부색 99%

속옷색 0.9%

기타 0.1%

(註·피부색페인트의 90%는 원색이 감도는 엷은 색이며 극장측은 피부색과 관객동원 숫자는 정비례 한다함)

—유명진 (성남시태평3동6343 통1반)

<요즘의 어떤 여자 이발사들>

손님을 흡사 친자식 다루듯 하더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다듬고 주무르고 알뜰히도 보살피며 슬적슬적 그 곳까지 건드리더라.

—함삼 (한국낙서회)

<낮은데로 임하소서>

고객 여러분! 예금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졌읍니다。

—김초롱 (土日文友會·전북부안읍시장 잉꼬수예점)

<사람들은 겨울에 손발 싹싹 비비지만>

우리는 여름에 손발을 싹싹 비빈다.

—음식물 앞의 파리—

—당나귀기월 (화양동사무소입구 0 B시음장·낙서전시)

週刊한국 민속·예술

캐나다 마음 사로잡은 태권도와 고전무용

—터론토 종합민속 예술제 캐러밴 행사—

한국 비롯 50여개국의 민족이 참가
「서울관」엔 2만5천여명 관객 몰려

◇김용순 무용단의 고전무용이 구경꾼들의 인기를 모았다。

캐나다로 이민온 각 민족들의 종합 민속 예술제인 금년도 캐러밴 행사가 지난6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캐나다 터론토 시내 곳곳에서 열려졌다.

한국을 비롯, 50여개국의 민족이 참가한 이 행사는 터론토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들이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관(館)을 설정, 고유문화·음식·무용·예술등을 전시하는 연례적 행사다.

한국민들은 서울관을 블루어거리와 인접해 있는 바더스트 8백30번지에 설치하고 서울에 있는 한국 여성 경제인협회가 보내온 진귀한 토산품과 부채, 장죽, 인형, 통소등을 선보였다.

이 기간동안 서울관에는 무려 2만5천여명의 관객이 다녀가 어느 다른 민족들이 설정한 관(館)보다 큰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은 대부분 캐나다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어느해 행사보다 한국 문화소개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순 무용단이 보여준 고전무용과 태권도 협회가 주관하는 태권도 시범이 구경꾼들의 인기를 모았다.

한국 음식으로는 만두·잡채·불고기등이 나왔고 서울시장으로 등장한 합병선씨는 도포를 입고 나와 손님을 일일이 맞아 이채를 띠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미스·코리아인 캐나다 함승희양이 이틀간 나와 봉사해 서울관의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했다.

한국일보 터론토지사는 지난 1년간 편집 보도된 주요 머리 기사를 사진이 있는것만 골라 진열함으로써 터론토 한민족사회에도 일간지가 있다는것을 과시하기도 했다.

4만명밖에 안되는, 한국교민사회에 어떻게 일간지가 있을수 있느냐는 감탄을 외국인 관람객으로 부터 받았다.

터론토 에트닉·그룹중 일간지를 가진 코뮤니티는 중국과 이탈리아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관입구에 천하대장군을 세워 입구에서부터 한국 고유문화의 인상을 짙게 풍겼다. 이 서울관의 운영은 터론토 한인회의 캐러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대환)가 주관했다.

이 기간중 수입은 1만7천달러.

이 캐러밴행사를 위해 터론토 총영사관은 3천달러를 캐러밴운영위에 기증했으며 실협 신의상사 (대표문인식)·각 한국식품점·각교회 여선교회등이 협찬했다.

◇태권도 협회가 주관해 보여주고있는 태권도 시범。

69년부터 실시,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캐러밴 행사는 지난68년 제나·코사르여사가 창안, 매년여름 터론토에서 10일간 실시해왔다.

이 행사는 각 민족이 주로 자기나라 수도이름을 붙인 파빌리언 (Pavilion)을 정해 자기나라의 고유문화·전통·풍습·산물등을 일반에 공개한다.

일반인은 각국 파빌리언을 순회하기 위해 1일사용 패스포트를 5달러에 샀고 9일 사용 통용권은 10달러에 샀다。

68년 제나·코사르여사가 창안, 69년부터 실시 올해로 14회째
매년여름 터론토서 자기나라 고유문화·전통·풍습·산물 공개

1개소의 파빌리언을 구경하는데는 3달러에 패스포트를 사 관람했다。

세계일주의 축소판이라 할수있는 이 캐러밴 행사는 ①자기 나라 특유의 음식과 술을 염가로 일반에게 맛보게 하고 ②자기나라의 예술품·공예품·특산품등을 진열해 일반에 감상토록 하며 ③민속음악·민속무용·고유악기·무술·합창등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매일 공연하고 ④공예품·토산품·기념품을 염가로 판매하고 ⑤시장(市長)과 공주(公主)를 선발, 현장에서 관객을 영접하여 자기나라를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며 ⑥일반인이 가지고있는 패스포트에 자기나라를 표시하는 비자를 입장할때 찍어주어 기념으로 보관하게 하는 행사를 한다。

한인회는 작년도에는 이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었다。

〈한국일보 터론토支社〉

珍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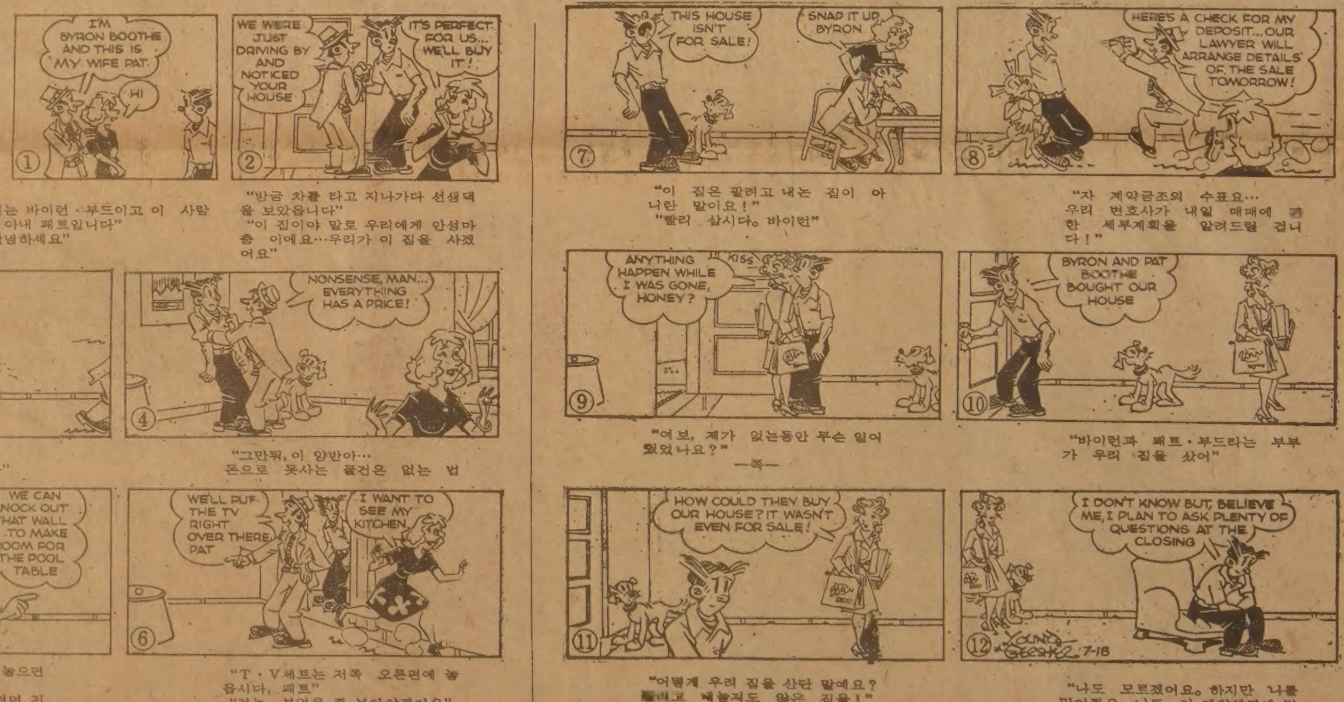
실책이 가장 적었던 팀(1년)

1964년 아메리칸리그의 볼티모어는 163게임을 치르는동안 실수가 95회밖에 없었다。

本社特約

블론디

딘·영作



① "저는 바이런·부드이고 이 사람은 아내 패트입니다" "안녕하세요"

② "방금 차를 타고 지나가다 선생댁을 보았읍니다" "이 집이야 말로 우리에게 안성마춤 이예요…우리가 이 집을 사겠어요"

③ "잠깐! 이 집은 팔 집이 아닙니다"

④ "그만둬, 이 양반아… 돈으로 못사는 물건은 없는 법"

⑤ "이곳에는 도자기 선반을 놓으면 꼭 맞겠어요" "당구대를 놓을 방을 만들려면 저 벽을 헐어야 할거야"

⑥ "T·V세트는 저쪽 오른편에 놓읍시다, 패트" "저는 부엌을 좀 보아야겠어요"

⑦ "이 집은 팔려고 내논 집이 아니란 말이요!" "빨리 삽시다。바이런"

⑧ "자 계약금조의 수표요… 우리 변호사가 내일 매매에 관한 세부계획을 알려드릴 겁니다!"

⑨ "여보, 제가 없는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쪽—

⑩ "바이런과 패트·부드라는 부부가 우리 집을 샀어"

⑪ "어떻게 우리 집을 산단 말예요? 팔려고 내놓지도 않은 집을!"

⑫ "나도 모르겠어요。하지만 나를 믿어줘요。나도 이 계약체결에 많은 질문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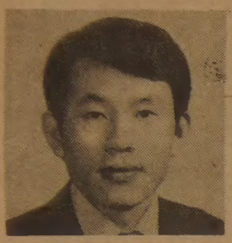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移民者·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英語연구원장>



◇민병철 씨

WE'LL HAVE TO WAIT AND SEE.

「두고보자」에 해당하는 말로는 We'll have to wait and see. 가 있다. 「테헤란에 있는 미대사관에 인질로 잡혀 있는 50명이 구출될것인가?」 Will the 50 hostages in the American Embassy in Tehran be rescued?라는 질문에 「두고 봐야알겠읍니다」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We'll have to wait and see. 라고 하면 될것이고, 「그친구가 당신에게서 꾸어간 돈을 갚을까요?」 Will he pay you back? 그 친구가 돈을 갚을는지는 「지나보아야 알것이다」라고할때는 We'll have to wait and see. 하면 된다.

A : Who do you think will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 : It's hard to say.
A : Do you think the Republicans have a good candidate?
B : No, right now I'd say it'll be a Democrat.
A : Well, then, will it be Carter or Kennedy?
B : We'll have to wait and see.

×　×

A : Have you applied for your scholarship yet?
B : Yes, I've sent in all the forms.
A : Now, you just have to wait and see.
B : Right. I hope I don't have to wait too long.
A : Why not?
B : Because my school term begins in another month.

×　×

A : How was your job interview?
B : I did everything I was supposed to do.
A : Tell me what you said.
B : Well, I talked about my qualifications, and why I wanted the job.
A : That sounds good to me.
B : Now I have to wait and see if they'll hire me.

A : 차기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세요?
B : 뭐라고얘기하기가어렵습니다.
A : 공화당 후보가 낫다고 생각하세요?
B : 아니요, 지금 현재로선 민주당 후보가더낫지않을까생각합니다.
A : 그렇다면, 카터와 케네디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까요?
B : 두고 보아야지요.

×　×

A : 장학금을 벌써 신청했니?
B : 그럼,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
A : 이제 기다려 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B : 그렇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A : 왜 그렇지?
B : 다음달에 학기가 시작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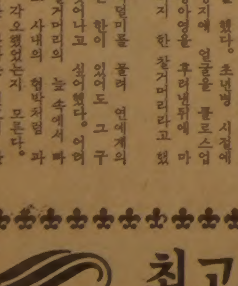
×　×

A : 취직 면접을 어떻게 했나요?
B : 나로서 할수 있는 일은 다했지요.
A : 면접때 했던 말을 해 보세요.
B : 내 자신의 자격과 그 직업을원하는 이유를 말했읍니다.
A : 잘 된 것 같습니다.
B : 이제 내가 채용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보아야지요.

pay back : 돈을 갚다。 candidate : 후보자。 hostage : 인질。 rescue : 구하다。 qualification : 자격。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海外걸작漫畵



『당신네 두사람이 정견으로 다툰다면 난 가버리겠어요.』
"If you two are going to argue politics, I'm leaving."

連載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4

지난줄거리

충찬은 무공 스님을 찾아나설 궁리로 엽치 형에게 연락했다. 충찬을 참담하게 만든 유기하가 중국정통파의 고수라는 사실과 유기하 때문에 처절한 죽음직전까지 간 엽치 형도 손가락을 잘랐다고 실토한다. 충찬은 중국정통파를 꺾을 결심으로 무공스님을 찾아갔다. 무공스님은 종아리의 살점이 다 터지는 매서운 회초리를 댔다. 충찬은 이를 악물고 그 지독스런 고통을 견딘다.

피투성이가 된 회초리를 내게 내밀며 무공 스님은 말했다.

『태워라.』

나는 일어섰다. 그러나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무공 스님이 내 종아리를 철썩 때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걷겠읍니다.』

『걸어라.』

나는 두 다리를 갑자기 잃은 사람처럼 엉금엉금 기어나갔다. 불쏘시개에 성냥불을 그었다. 회초리에 엉겨붙은 살점이 검붉어 보였다.

불꽃 속에 회초리를 던졌다. 내 살점이 타는 냄새가 내 심정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숨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며 속수무책으로 얻어맞는 건 두 스님한테 뿐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나는 맞을 짓을 했다. 내게 무공전법을 가르쳐 줄 때는 함부로 주먹을 쓰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다. 적어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정의로운 일이 아니면 주먹을 쓰지 말라고 배웠었다.

내가 한 짓들이 결코 내 행복, 내 일인분의 행복을 위해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속적인 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할수도 없었다.

회초리를 다 태우고 엉금엉금 재어 들어왔다.

『네가 올줄 알았다.』

『스님, 죄가 많습니다.』

『어째 왔느냐?』

『스님 모시고 선이나 하다 가겠읍니다. 가르침 받들고 제 묻은 저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묵거라.』

나는 차마 유기하란 사내에게 처절한 패배를 했다고 할수 없었다. 어쩌면 스님은 그것까지도 짐작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왜 혼자 왔느냐?』

『예?』

『두 녀석이 올줄 알았다.』

『예, 사정이 있어서 혼자 왔읍니다.』

엽치 형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엽치형은 무공 스님 앞에 다시는 낯설 수 없었다. 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이었다.

『이 약은 내가 만든 거다. 때마다 발라라.』

『예.』

나는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다리를 펴고 앉아라.』

『괜찮습니다.』

『공양하고 올라오너라.』

『예.』

나는 겨우 무공 스님 방을 빠져 왔다. 아래채로 내려섰다. 행자 셋이 좇아와 나를 부축했다.

『많이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누굴 그렇게 때리신다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읍니다.』

『아마 무공 스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실 겁니다.』

『그러시겠죠.』

나는 부축을 받으며 겨우 내려섰다. 아래채에 모여 있던 행자들이 나를 툇마루에 앉혔다.

『공양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나는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될지 짐작하고 있었다. 밤낮 없는 참선과 내공을 기르기위한 훈련으로 내 육체가 쇠잔해질 때까지 다루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신없이 된장에 비벼 밥을 먹었다. 행자들이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초 스님을 만난 것도 행자만큼이나 어릴때 였다.

『혹시 무초 스님 들르시나요?』

『가끔 오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은 아마 무등산 근처에서 안거하신 모양입니다.』

『그럼 백중이나 돼야 내려오시겠군요. 건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전하십니다.』

무초 스님은 깡마른 체구여서 여더 한점 힘이 들어 있을 것같지 않은데도 회초리 하나로 산짐승을 물리치고 날카로운 표창을 막아내는 신기를 지니고 있었다.

『많이 아프시겠네요.』

행자가 내 종아리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참을만 합니다.』

『퍽 아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내 얘기를 가끔 하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쩌면 맵게 다루는 사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아마 무공스님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실 겁니다
나는 죽음을 느끼고 있다… 모든게 흐려지기만 한다

『못된 짓하고 다니니까 맞아도 싸죠.』

나는 공양이 끝나자 종아리에 약을 바르고 올라섰다. 행자가 부축하려고 일어났다.

『그냥 둬라.』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무공 스님이 바위 위에 앉아 행자를 나무랐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위 있는데까지 기어갔다.

『결가부좌다.』

무공 스님은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금니를 바서져라 악물고 결가부좌를 틀었다. 참선을 하지 않은지 오래 되어 결가부좌를 틀기도 어려운데 종아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보통 고역이 아니었다.

내려 쬐는 햇볕에 머리통이 욱신거리며 아팠다. 달구어진 바윗덩어리에선 열이 받쳐 올라왔다. 이십분도 못되어 다리의 근육은 마비되었다. 온통 땀으로 젖었다.

마주 보이는 무공 스님은 땀 한방울을 흘리지 않았다. 빛나는 머리위에 햇볕은 이글거리며 타고 있었다.

목이 말랐다. 바위 밑으로 철철 흐르는 계곡물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무공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위 바닥엔 땀이 괴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다 집어치우고 싶었다. 정신이 몽롱해졌다. 이를 악물수도 없었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나는 죽음을 느끼고 있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눈이 흐려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땀이 눈속에 들어가서 그런게 아니었다. 모든게 흐릿해지기만 했다.

『스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가물거리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스님, 죽여주세요.』

『스님, 제발.』

『스님.』

그래도 무공 스님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다.

나는 바위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기억나는건 하나도 없었다.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혈을 잡는 행자들의 목소리만 어렴풋이 들렸다.

한참만에 나는 천장을 볼수있었다. 정강이와 뒤꿈치에 대침이 꽂혀 있었다. 무공 스님이 미소를 짓고있었다.

『스님, 제발….』

나는 눈물 때문에 제대로 말할수가 없었다.

『일어나거라.』

무공 스님이 이렇게 말하자 행자가 대침을 뽑았다. 앞장 서는 무공 스님뒤를 따라갔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하반신이었다. 스님이 혈을 짚어주고 대침을 꽂아 근육마비를 풀어준것같았다.

무공 스님은 계곡 깊숙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무공 스님은 장삼자락을 늘어뜨린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앉거라.』

무공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물속에서 결가부좌를 틀었다. 가슴을 넘는 계곡물속에서 나도 따라 결가부좌를 틀었다. 보통 차가운 물이 아니었다.

몸은 금방 얼어붙기 시작했다. 뼈속 깊은 곳까지 냉기가 스며들었다. 차라리 냉동기 속에 들어가 단숨에 죽는게 현명하다 싶었다.

상체부터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다리 근육은 완전히 굳어서 결가부좌를 풀 수도 없었다. 이빨은 전성으로 부딪쳤다.

무공 스님은 부처처럼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스님, 살려주세요. 스님, 제발….』

말소리도 얼어붙었다. 혀가 움직이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주치던 이빨도 떡이 굳어서 부딪치지 않았다.

나는 두번째 기절을 했다.

깨어났을 땐 아까처럼 대침을 꽂은채 평상위에 누워 있었다. 장삼으로 내 몸을 마사지하던 행자들의 얼굴은 땀투성이였다.

『일어나서 삼천배를 하고 올라오너라.』

『예.』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박힌 대침을 뺀 행자가 물러섰다.

위채를 향한 채 절을 시작했다.

오금이 펴지지 않았다. 행자는 옆에 앉아서 내가 절하는 횟수를 세고 있었다. 행자의 얼굴도 부처같았다. 삼백배가 넘자 나는 혓바닥을 깨물었다. 절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이 고통을 얼마나 겪어야만 스님이 하산명령 내릴지
가벼운 깃털처럼 중국계 고수의 혈을 잡을수 있을까

나는 전신이 마비되었다. 땡볕의 바위위에서 선을 하는 것보다도, 차가운 물속에서 선을 하는것 보다도 고통스러웠다.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녘에 나는 겨우 삼천배를 끝냈다. 그리고 나는 세번째 기절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내 일과였다. 첫날부터 시작된 이 세가지 고통은 무공 스님과 똑같이 겪는 것이었다.

내 살결은 시커먼 미국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완벽한 검둥이가 되었다. 매일 햇볕에 그을려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고통을 얼마나 겪어야만 무공 스님이 하산명령을 내릴지 알 수 없었다. 일년이든 이년이든 무한정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평생 풀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무공 스님 곁을 하산명령 없이 떠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런 지독한 장면은 단 한번도 본적이 없읍니다.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스스로 고통 속에 들어가시는 건 처음입니다. 차마 저희들이 못 모시겠읍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읍니다.』

공양 시간과 잠 자는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나였다. 행자들과도 공양시간에만 잠깐씩 얘기를 나눌 뿐이었다.

『전 괜찮습니다만 큰 스님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형처럼 독한 분은 정말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만 그정도는 아니었읍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게 이해가 안갈 정돕니다.』

『저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다만 정선이 더 맑아지고 몸이 더 좋아지는 이유를 알았읍니다. 높은 경지에 있는 스님들이 꼿꼿하게 서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읍니다.』

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실이었다. 무공권법 한수 배워 주지 않았지만 내 몸은 저절로 날아 갈것 같았고 아무리 독을 품은 독사라도 달려들지 못할 것처럼 정신만 통일하면 살갗이 굳어졌다.

햇볕도 뜨겁지 않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삼천배를 해도 몸은 깃털처럼 유연해지기만 했다.

참선을 통한 정신통일은 내가 생각해도 무아의 경지였다. 얼음같은 계곡물도 따뜻하게 느낄 수 있었고 살갗을 훌떡 태우는 햇볕도 서늘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늘부터 좌선하며 자거라.』

무공 스님과 나는 한방에서 좌선하며 눈을 감았다. 4시간 동안 앉아서 자는 것으로도 수면이 충분했다.

엄청난 이 변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끝 없는 이 세계.

내가 어쩌면 득도하여 신선이 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터무니 없던 것이었는지 이제 깨달을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여러 달이 흘러갔다.

무공 스님과 나는 호흡도 같았고 아래채와 위채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무공 스님의 눈빛만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았다. 무공 스님과 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하고도 남았다.

『오늘부터 권법을 익혀라.』

『예.』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다.

무술은 깊은 계곡과 정상에서 이루어졌다.

『몸이 빠른 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내공으로 제압하고 깃털처럼 부드러움으로 방어하고 먼지처럼 흐트러져야 하느니라.』

험한 산세가 재미있는 놀이터 같았다. 무공 스님은 언제나 부드럽고 가벼운 율동만으로 엄청난 염력을 보여주었다. 엄지 손가락으로 바위를 눌러 깨뜨렸고 손바닥으로 고목의 등지를 쓰러뜨렸으며 작은 돌멩이로 큰 바위에 구멍을 뚫는 신기를 나는 조금씩 깨달았다.

그런 나날의 연속이었다.

나는 새로 태어나는 신선한 감각으로 무공 스님의 신기를 배웠다. 나는 새로 태어난 인간이었다. 무공 스님이 만들어 주는 이상한 풀로 만든 음식만 먹으며 처절한 극한세계 속에서 살았다.

『내일 하산하거라.』

『예?』

『오늘은 일찍 자고 새벽에 떠나가거라.』

『예.』

무공 스님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 무공 스님과 참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통해져서 굳이 말이 필요가 없었다.

새벽에 삼천배를 올리고 계곡으로 내려섰다. 행자가 주먹밥을 내밀며 싱긋 웃었다. 무공 스님은 바위위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하나님. 하나님도 내려와서 참선을 해보시죠. 아마 그 충격은 하나님도 놀랄겁니다. 서양식의 현상적 논리로는 감히 이해할수없는 경지입니다.

하긴 하나님도 참선의 경지를 뛰어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몇천년 동안 그렇게 말없이 두 눈을 감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는 그 지독한 무관심은 서양식 참선인가요?

동양식 참선을 좀 배우세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몇달동안 바깥 세상과 완전한 격리생활이었다. 날짜 가는 것은 더욱 몰랐다.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도 처음의 일이지 나중에는 밤과 낮을 구분할 수도 없었다.

유기하. 중국 정통파. 엽치 형과 나를 처참하게 한 고수.

대륙의 도술이라는 궁지로 우리나라의 고수들을 차례로 욕보이는 피련의 사내를 또 만날수 있을까?

빠른 몸짓으로 상대한다는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나는 깨달았다. 춤추듯, 가벼운 깃털처럼 움직이는 율동으로 중국계 고수의 혈을 잡을수 있을것 같았다.

산을 다 내려와 바닷가 쪽으로 나갔다. 몇달을 갇혀 살았는지 알 것같았다. 해수욕장으로 몰려가는 인파가 들끓고 있었다.

바닷가마다 울긋불긋한 수영복차림의 피서객들이 보였다. 작년 여름을 생각이 떠올랐다. 다혜를 놓치기 위해 여름의 음모를 꾸몄다가 명식이와 아름다운 설악산의 밤을 엮기만 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차창으로 나는 비로소 사람의 냄새, 그리운 그 냄새를 느꼈다.

유기하를 만나는 일보다는 다혜를 만나고 싶었다.

다혜는 어떤 표정일까? 몇달동안 소식 한번 없었기 때문에 짜증을 부릴지도 모른다.

옆 사람이 다 보고 내려놓은 주간지를 펼쳐 보았다. 나는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탤런트 정아영양이 주간지 기사속에서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시에프모델과 영화배우이기도 한 정아영은 미려한 용모로 톱스타 자리를 넘보는 유망주였다.

프러듀서와 영화감독의 노리개가 되어 사생활이 엉망진창이란 사실이 폭로된 기사였다. 열 여덟살에 탤런트가 되어 기궁한 살림을 도맡는 가장의 처지, 치졸한 프러듀서와 영화감독들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는척하고 그녀의 육체를 탐닉하는 숫법을 썼다.

항상 있는 일이었지만 내 눈엔 이상한 점이 보였다. 정아영이라면 보슬비의 친한 친구여서 내가 정아영의 딱한 실정을 조금은 알고 있는 터였다.

정아영은 보슬비에게 항상 어떤 주간지의 사진부 기자에게 협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 초년병 시절에 주간지와 여성지에 얼굴을 클로즈업시켜준다며 정아영을 후려낸뒤에 마누라와 이혼까지 한 찰거머리라고 했다.

정아영은 목덜미를 물려 연예계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그 구렁텅이만은 벗어나고 싶어했다. 어떠서 헛짚은 찰거머리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사내의 협박처럼 파멸의 쓴맛을 각오했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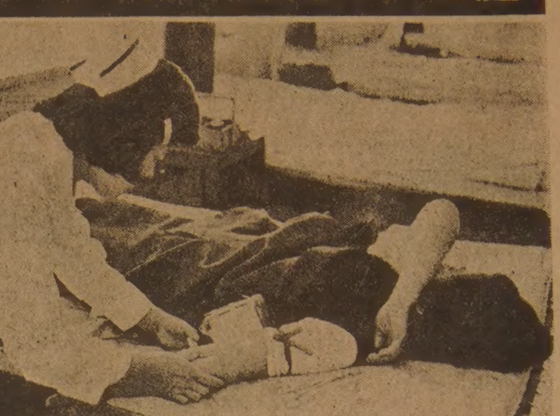
나는 유기하를 만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特輯·무섭게 번지는 전염병의 正體

肝炎공포…도대체 어떤 病이길래

전국민의 10~12%가 保菌 그치료와 예방


◇간염에 걸린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1백% 전염된다.

◇B형 바이러스간염의 정체와 예방책등을 설명하는 金丁龍박사.

간염이 새로운 전염병으로 등장,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고 국민들은 이를 심각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간경변증, 간암등 무서운 질환을 유발시키는 B형간염의 바이러스 보균자는 전체국민의 10~12%. 10사람중 1명이 간염환자인 셈이다. 이때문에「간염왕국」이란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간염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주변 도처에 널려있으나 우리는 이를 가볍게 넘기고 있어 이 병의 확산이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여러사람의 입을대는 술잔도 간염을 옮길 위험이많다.

◇간염이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간장의 질환은 간염, 간경변, 간암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간경변증이 치료하기 어려운 골치아픈 질환이라는것과 간암이 손대기 어려운 불치에 가까운 병이라는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간염이라면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상 간염 자체는 난치병도 아니며 그렇게 두려워할 질환이 아닌것만은 사실이다.

간염 만성화되면 간경변·간암으로 진전

그러나 간염이 만성화하여 간경변증으로 악화될수가 있고 또 더 심하면 암으로 진전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간염을 가볍게만 생각할수는 없을것이다.

더우기 간염이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때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10명중 1명이 전염성 간염의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름 끼쳐지는 일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간염이란 한마디로 바이러스, 약물, 기생충, 알콜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염증을 일으켜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질환이다.

그런데 간염을 발생토록 하는 원인중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의한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성 간염은 A형, B형, A형도 B형도 아닌형(非A非B형)으로 구분된다.

A형간염은 주로 4~9세에 1백% 걸려 약 4주 이내에 절로 치유된다.

감기증상, 비슷하게 발병 했다가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다.

A형간염은 한번 걸리면 몸에 항체가 생겨 일생동안 면역이 된다. 만성화하지도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非A非B형은 만성화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A형처럼 증상이 가볍고 또 간염중 그 비중이 5% 미만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치아픈것은 바로 B형간염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B형 간염은 항체가 몸속에 오래 지속하지 않기때문에 반복간염이 될수도 있고 또 만성화하여 혈액속에 일생동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염시키거도 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그런데 바로 이 B형간염의 바이러스가 간암을 비롯한 간경변, 만성간염의 주범인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간장질환의 원흉은 바로 B형 간염바이러스인 것이다.

金丁龍교수(서울대의대)는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B형간염은 치료를 안할 경우 10~20%가 만성간염이 되며 만성간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40%가 간경변으로 악화되고 또 간경변의 25%가 간암을 유발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간염의 실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간염의 왕국」이라는 수치스러운 명예가 씌워져 있다.

이같은 오명이 붙어져 있지만 간염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간염환자가 증가일로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마디로 속수무책인 상태.

다만 적십자혈액원이나 전문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에 의해 간염환자수를 어림잡고 있을 뿐이다.

간염환자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서울적십자혈액원이 지난 1~4월사이 헌혈자 3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양성으로 나타난 통계.

그러나 이 수치는 비교적 위생상태가 좋은 서울지역주민들의 감염율로서 전국적인 수치는 이보다 훨씬 능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기관이나 전문교수들의 개별적인 조사자료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B형간염 이환율은 10~12%선으로 추산되고있다.

이같은 수치는 美國의 보균율 0·1~0·12%보다는 줄잡아 1백배, 이웃 日本의 1·2%보다는 10배나 높은것으로 나타난다.

3년전 金丁龍교수가 발표한 B형간염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된다.

그 당시의 조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6·3%가 간암, 간경변등 만성

「간염王國」임에도 當局 속수무책

벗 끼리나누는 술잔·수혈·주사침서도 감염

간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러스성B형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전체주민의 7·9%가 무서운 B형간염을 앓고 있다고 보고한바있다.

최근의 각종 통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70%이상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B형간염을 경험한 상태라는것.

이름되면 「간염왕국」이란 오명을 씌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여건은 오명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것은 아니다.

극동지역 아프리카, 지중해연안등 저개발국가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나열에 끼어있다.

간염이환율이 낮은 선진국에서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인 여름 간염환자들이 많은 나라에 여행할때 간염예방을 위한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감염경로

골칫거리인 B형간염의 감염경로는 수혈과 주사침에의한것이 전체요인의 75%나 된다.

그러나 최근 B형간염바이러스를 정확히 가려내고 있기때문에 수혈에 의한 감염은 크게 줄고 있다.

그대신 이발소나 공동목욕탕의 면도기, 수건, 칫솔등에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문란한 성교등 남녀간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감염도 늘어나고 있는실정. 음식물을 통해서도 물론 감염되고있다.

감염바이러스는 몸안에 들어온뒤 3개월가량 잠복기간이 지난뒤에 병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름철의 비위생적인 생활과 겨울철의 적단생활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봄과 가을에 많은 간염환자들을 볼수가 있다.

특히 간염의 감염은 가족끼리의 감염현상이 두렷하다.

金丁龍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간염환자의 59·9%가 어머니로부터 바이러스를 옮겨받는다는 것이다.

또 아버지의 영향은 9·2%.

만성간염환자가 형제 자매중에 있을 경우 그 감염가능성은 50% 이상이라는것이다.

비위생적인 음식점의 불결한 그릇이나 수저에서도 감염된다.

친한 벗끼리 주고받는 술잔에서도 물론 감염될 수가 있다.

B형 간염의 경우 과거에는 수혈이나 주사기등 혈청감염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처럼 감염경로가 다양해졌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간질환의 특징은 어느정도 악화되어도 통증이 없고 두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지나치다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문을 두드리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기능에 이상이 올 경우는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며 식욕이 없고 구역질이 나거나 헛배가 부르고 거북한 경우.

또 눈 흰자위에 황달현상이 나타나거나 소변색깔이 진한 다갈색일때, 몸에 별모양의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손바닥이 붉어지며 잇몸이나 위장에서 출혈이 있을때는 일단 의심을 하는것이 좋겠다.

복부, 발목 부종이 [illegible]다 미열이 나고 감기증세가 오래 계속될때도 병원을 찾는것이 현명하겠다.

물론 이같은 증세는 자신이 스스로 알아볼수있는 간염 진단법이고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받아야된다.

간염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과로를 피하고 절대 안정해야하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것이 바로 회복의 지름길.

간에 부담을 주는 술, 담배를 삼가해야되며 전문의의 지시없이 약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약물요법은 비타민B복합제와 간장보호제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하며 아무 간장약이나 함부로 쓰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아스피린등 피린계의 약물은 간염을 재발시키므로 피해야 한다.

◇사람이 북적대는 풀장은 간염에 전염될 우려가 짙다.

◇예 방

金丁龍교수는 간염의 예방책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개인위생에 조심하는 소극적인 방법과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날음식을 피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어야 하며 외출했다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간에 부담을 주는 과음이나 지나친 흡연은 삼가는것이 좋겠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서지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더욱 조심해야만 된다.

간염의 감염경로를 봉쇄하는것이 바로 간염에 걸려지 않는 예방책이다.

약수터에서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바가지를 이용하는것도 위험하다.

날음식 過飮삼가…간장약 함부로 쓰지말라

법정 전염병 지정할듯…日 「박멸의 해」설정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것 역시 위험한 것이다.

보균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짙은 이발소나 목욕탕의 면도기, 문신바늘, 칫솔등도 극히 위험한 일이다.

혈액을 통한 수혈방법이 아니더라도 주사침이나 한방의 침, 치과용기구등은 말할나위없이 위험물이다.

일반가정에서 세면도구나 수건, 수저등 식사도구 같은것을 자기것을 사용하는것도 하나의 예방책.

문란한 성행위나 키스도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특히 어머니가 유아에게 밥을 씹어 먹이거나 뜨거운것을 입으로 바람을 불어 식혀먹이는 행위도 대단히 위험한 일.

또 임신기간중 감염된 여성에서 태반을 통해 신생아로 감염되고 임신후에는 모유를 통해서 유아에게 전염된다는 사실도 중요시 해야 한다.

하여튼 비위생적인 생활습성은 모조리 버려야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해서 간염이 예방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 주변에는 간염을 전염시킬 매개물들이 즐비하게 노출되어 있기때문이다.

직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컵이나 코피잔 또 음식점의 수저나 식기류등은 간염을 전염시킬수 있는 위험물들이다.

음식점이나 술집등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주지 않는한 고객의 입장에선 방어책이 따로 없다.

여러사람과 업소를 들락거리는 음식점의 수저, 술잔의 술잔등은 특히 위험하다.

간염 바이러스는 섭씨 1백도 이상으로 끓여야 죽는다.

흔히들 간이 나쁘다면 술을 생각하게된다. 그러나 술이 간에 반드시 나쁜것은 아니라는것.

金丁龍박사는 과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주없이 연속적으로 과음하는것이 해롭다는것이다.

알콜의 대사기능은 간장만이 갖고있고 간장은 알콜의 분해를 다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기때문에 몸속에 알콜분이 남아 있는한 다른 해독·대사작용은 못하게된다.

술을 계속 마시면 이같은 작용을 못하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작용도 못하기 때문에 지방간이 된다.

간장을 괴롭히는것은 알콜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문제가 되고있는 B형간염환자가 10사람중 1명꼴이라면 전염 가능성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게된다.

특히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B형간염 이환율이 해마다 10%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있다.

간염이 이처럼 심각성을 띠고 있는데도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었다는것이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간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못했을뿐 아니라 계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게 「간염왕국」이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된 동기가 된다.

당국은 때늦은 감이 있긴하나 간염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간염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 日本만 하더라도 「간염박멸의 해」를 설정할 정도로 간염퇴치에 열을 올려왔고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이같은 운동을 전개해왔었다.

전문가들은 간염을 하루속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국비로 집중적인 예방및 치료사업을 펼쳐야만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金弘祚기자>

편식 어린이엔 야채를 먹여라

녹황색 야채에 특유영양소 카로틴 함유

편식이 심한 어린이가 야채를 꺼릴경우 과일만 먹여도 괜찮을것으로 여기는 수가 있다.

그러나 야채에는 야채특유의 영양소가 있어 과일만으로는 야채대용의 효과를 기대할수가 없다.

야채는 녹황색야채와 담색야채로 분류된다.

시금치, 당근, 호박등과 같이 색이 짙은 야채가 바로 녹황색 야채이다.

녹황색 야채는 색이 짙을 뿐아니라 이들 식품 1백g에 6백마이크로g 이상의 카로틴(프로비타민A)을 함유한것을 말하며 그 이하의 것을 담색야채라한다.

녹황색야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의 작용을 한다.

녹황색 야채에는 이밖에도 비타민C, B2, 칼슘, 철분등이 포함되어 있다.

녹황색 야채는 1일 1백g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

계절적으로 이제부터는 시금치등 푸른채소류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근, 호박, 부추, 양상치, 아스파라거스, 파슬리등을 많이 먹어야한다.

한편 담색 야채는 양배추, 양상치등 날로 먹을수 있는것이 많아 비타민C원으로서 좋다.

담색야채, 녹황색야채에 모두 들어있는 섬유질은 영양소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장벽을 자극해서 정장 역할을 한다.

과일은 야채와 같이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으나 카로틴의 양이 훨씬 적어 야채 대용이 될수 없다.

또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있어 맛이 있으나 지나치게 먹으면 과다한 칼로리를 취하기 쉽다는 점이 야채와 다르다.

건강을 위해 충분한 야채와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것이 좋겠다.

비타민A 풍부…과일은 비타민C

살림의 지혜

샌들 고르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은 평면적이고 볼이 넓은게 특징이다. 따라서 샌들을 고를 땐 직접 신어보고 샌들의 아치부분이 발바닥의 굴곡과 딱 맞는가를 살펴야 한다. 아치가 안맞으면 피곤해지기 쉽다.

또 샌들을 신고 걸어봤을때 앞쪽으로 자꾸 밀려나가는 듯할 것도 좋지않다.

구두를 신고 측면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 발 뒤꿈치가 구두보다 3mm정도 나오는 크기를 고르는것이 적당하다.

구두를 신고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양옆으로 발가락이 불거져 나와 보기 흉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폭이 좀 더 넓은것을 고르든지 양옆이 발바닥까지 덮인 디자인을 택한다.

볼이 좁으면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프고 쉬 피로를 느끼므로 가급적 신어 보아 볼이 편한것을 고르고 발끝에 1cm정도 여유있는 것이 예쁘게 보인다.

그밖에 발을 지탱해 주는 벨트에도 주의해야 한다. 빗벨트형도 많으나 양쪽에도 지탱할것이 있는 디자인이 튼튼하다.

<삽화·權大雄>

목걸이 줄이 끊어졌을 때

목걸이 줄이 끊어져 구슬이 흩어지면 다시 꿰기가 아주 힘들다.

이럴 땐 나일론 낚시줄따위를 이용하면 튼튼하기도하고 목에 걸었을때 몹시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을 만든다.

또 나일론 낚시줄은 빳빳하므로 바늘에 꿰울 필요도 없이 그대로 구슬구멍에 꿰울수가 있어 편리하다.

칠그릇 냄새 제거

칠그릇엔 특유의 냄새가 있다. 이것은 옻칠 냄새로 이 냄새를 없애지 않고 쓰면 요리에까지 냄새가 밴다.

칠그릇 냄새를 없애려면 3일 정도 쌀통에 넣어 둔다. 쌀겨에 옻칠 냄새가 스며들어 감쪽같이 없어진다. 그후 식초물 덤구어 물로 씻으면 완전히 냄새가 없어진다.

창문 바퀴 수리

창바퀴가 헐거워지면 창문이 잘 여닫히지 않는다. 이럴 땐 창문을 떼어내 창바퀴의 느슨해진 나사를 뺀다음 그 나사보다 조금 큰 나사를 죄면 대개는 고쳐진다.

창바퀴에 녹이 슬었거나 마멸됐을 땐 같은 크기의 바퀴로 새로 바꾼다. 이때도 나사는 전에것 보다 조금 큰 것을 쓰는게 좋다.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15회〉

김	칠	호	■	구	미	호
용	■	조	훈	현	■	신
희	생	■	수	■	마	술
■	맥	박	■	사	돈	■
안	주	■	롯	■	나	비
중	■	암	시	장	■	바
근	로	자	■	미	아	리

故事通

無伐善 無施勞

내 좋은 점을 자랑함이 없고 자기의 공로를 대수롭게 늘어놓음이 없기를 바라야 한다(顔回의 말)。자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군자로서의 할 짓이 아니고 남이 그것을 알아주도록 해야 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라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하실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 Variety Store에서 하루5시간 Help 해주실분(유경험자 원함). 또는 가게를 직접맡아서 운영하실분 구함. 전화 : 967-4461 (Mr. 용)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햄버거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영어하실 수 있는 분 환영. 침식제공 월 700불 전화 : 1-705-748-9722

매니저 구함. 조건 : Stock인수. 주매상 : $9,000이상. 전화 : 881-4007 (Mr. 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구직

다운타운에 가까운 Weat Area. 출퇴근하며 아기 성심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전화 : 423-3114 (Mrs. 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영어 개인지도 해드립니다. 쓰기, 읽기, 어휘등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지도해드리며 시간당 $10로서 하루 Course는 5시간에 $50되겠읍니다.
성심 성의껏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드리는 것을 약속합니다.
전화 : 225-7648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Variety Store.(in Mall) 가정 형편상 아주 싼값에 드립니다. 전화 : 270-7072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 Ne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Variety Store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주매상 : $9,000이상.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 옆길.

Vancouver Downtown 좋은 위치. 단골 고객이 많은 성업중인 Discount옷가게. 건강상 매매. 년매상 : $180,000. 아스킹 : $39,000 리 스 : 2년+3년 옵션. 주6일 영업(10:00 a.m~6:00 p.m) 전화 : 239-2193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Variety Store (Rogers & Oakwood) 주매상 : $3,500 Patrick Ho. Real Estate. Jack 593-8967

Convience Store for Sale (St.Catherine지역) 년매상('81): $240,000. 리스 : 5년+5년 Rent : $900. 아스킹 : $26,000. 전화 : 266-5895(Mr. Kim)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잘 설비된 봉제공장을 매매코져함. 이 시간에 직접내방 바람. (월~금: 4:00 p.m~6:00 p.m) 292 Parliament St. (at Dundas)

Grocery & Variety (새로 Open한 Store) 전화 : 431-4474 리스 : 5년+5년 Option (Lawrence & McCowan) 619 McCowan Rd.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 바람)

• 수퍼마켓 매매.
• 빌딩도 함께 팔 수 있음. (로렌스 × 빅토리아 파크)
전화 : 759-9331 Mr. 아트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 $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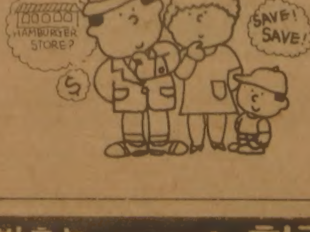
1) Variety & Gift. 8년 리스. 아스킹: $34,000
6개의 Pin Ball Machine도 Asking Price에 포함됨.
2) Variety & Gift(Jane & Lawrence) 아스킹 : $19,900
3)2 Apt 포함한 Grocery Store. at Queen St. 아스킹 : $145,000
4) Store와 Apt.(at Super Location) 아스킹 : $250,000
5) Wasaga Beach에 있는 8개의 Cottage 아스킹 : $189,000
For More Information Call Doris Burda.
전화 : 763-5555
R. Cholkan & Co. Ltd. Realtor.

Fast Food Take-Out. 새로지은 Mall (미시사가 지역) 주매상 : $1,800. 아스킹 : $50,000 전화 : Luba. 624-4247. 826-5942

Glass Shelf. 카운터등 (Gift Shop용) 전화 : 425-9839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월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5일에 $13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1 Bed Rm. Apt. 세놓음. (Downtown) Sherbourne & Wellesley (언제든지 입주가능) $380/M. 전화 : 537-3608 (Mrs. 리)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눈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